

2010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 ‘책 읽는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2010년 9월 30일(목요일) 13:00~14:50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2010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 ‘책 읽는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시: 2010년 9월 30일(목요일) 13:00~14:50

장소: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사회: 안찬수(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사무처장)

발표: 김성주(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윤명희(과주시 도서관정책팀장)

이진홍(익산희망연대 사무국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2010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책 읽는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책 읽는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5
‘책 읽는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작은도서관 육성을 통한 전북의 경험	15
과주, ‘책 읽는 도시’로의 출발	25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꿈꾸며	37
서울 관악구 희망의 도서관 프로젝트 구상과 실행	49
책 읽는 의정부를 생각한다	77
도서관의 도시, 책 읽는 도시	93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99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101
과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04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106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8



2010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 기초발제  
2010년 9월 30일(목요일) 13:00~14:50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 ‘책읽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 찬 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 1.

2010년 9월 29일(수)부터 10월 1일(금)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은철)가 “U-Library: 정보공유와 참여의 공간,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전국도서관대회를 엽니다.

바람직한 도서관문화 조성을 위한 전국 도서관인들의 배움과 만남의 장으로 196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 대회는 어느덧 제47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은 ‘책읽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 관계자들과 논의의 장을 펼칩니다.

저는 이번 대회의 주제인 ‘U-Library: 정보공유와 참여의 공간, 도서관’이라는 것의 의미를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라는 것으로 풀어 새기면서 ‘유니쿼터스’(Ubiquitous)라는 말의 뜻을 생각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니쿼터스’라는 말은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라틴어 유비크(ubique)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현실을 생각할 때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도서관’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저는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이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을 때, 저는 오히려 기술의 발전은 우리 현실의 본질적인 면을 어둡게 할 우려도 있음을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기술의 발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이 도서관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우리 사회의 도서관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이며 결국에는 휴먼웨어(human-ware)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책읽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은 ‘U-Library : 정보공유와 참여의 공간, 도서관’이라는 이번 대회의 주제를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공유와 참여의 정신이라는 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책읽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의 어떤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문화의 발전단계는 바로 ‘공유와 참여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서관의 본질적인 정신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 2.

도서관문화의 발전단계를 고려한다면, 도서관운동의 많은 역량을 ‘휴먼웨어’ 즉 ‘사람의 문제’에 쏟아 부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기본적인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민주주의적(democratic) 관점이며, 또 하나는 자치(self-rule)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흔히 도서관계에서 ‘도서관의 이용자’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역량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 혹은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를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가입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도서관 현실은 ‘비참’합니다.

유사 이래 전 관종을 포괄한 최초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의 첫머리를 보면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미국 3만1천 명, 일본 4만1천 명, 영국 1만1천 명, 독일 9천 명”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가 10만4천명(462관)에서 2006년 8만7천 명(564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사서1인당 봉사대상 인구 25,051명에서 19,173명). 이는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적인 비교’를 ‘질적인 비교’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적인 것’의 본질로서 ‘민주주의적 관점’과 ‘시민 자치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매우 일천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사는 더 일천합니다. 비록 지방자치제도가 국가의 최고 법규범인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하지만(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의 제8장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임을 진정으로 우리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가, 또한 자치제도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헌법상의 의무로 여기며 이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를 도서관 문화의 여러 지표는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자 가운데 한 분인 김성주 위원장께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전라북도는 “인구의 지속적 감소 속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1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의 전국평균은 ‘전국계: 52.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절반 정도의 재원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중앙집권적입니다.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시·도	시	군	자치구
평균	83.4	56.3	31.6	40.0	18.0	35.4

(\*출처: ‘재정고’(<http://lofin.mopas.go.kr/>) 2010년 9월 27일)

이러한 중앙집권성을 한편으로 고려하면서 도서관문화 지표를 재검토해보면, 우리는 첫째 주요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주요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구수와 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참고: 정세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논의와 방향>)

<표 1> 주요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구수 비교

(단위: 인)

국가명	평균인구수	국가명	평균인구수
영 국	128,061.2	이탈리아	7,266.7
프랑스	1,743.3	미 국	8,492.0
독 일	6,348.6	일 본	72,422.5
스페인	5,639.6	한 국'	209,942.7

산식(算式): 국가의 총인구수/기초자치단체수=기초자치단체당 평균인구

1. 제주도를 제외한 인구수를 시·군·구의 수로 나눈 것임.

※ 출처 : *Palmarès des Pays et Territoires du Monde*(2008)  
*Lexilogos* (2008)

이 표를 보면,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구수는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들 국가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평균인구수가 가장 많은 영국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정세욱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광역화하거나, 이를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나라 시·군·구의 인구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군·구의 인구규모는 영국 디스트릭트(District)의 1.6배, 일본 시·정·촌(市·町·村)의 2.9배, 미국 뮤니시팔리티(municipalities)의 24.7배, 독일 게마인데(Gemeinde)의 33.1배, 스페인 뮤니시피오스(municipios)의 37.2배, 이탈리아 코무니(comuni)의 28.9배, 프랑스 코뮌(commune)의 120.4배나 됩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이 넓은 이유는 1952년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할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시·읍·면으로 하였으나, 재정력의 취약, 주민들의 낮은 의식수준, 소구역 자치의 수용태세 미비로 인한 막대한 폐해와 결함, 비효율 등이 드러나, 1961년 9월 읍·면자치를 폐지하고 군(郡)자치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1,467개(1960년)에서 230개(1995년)로 줄었고,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은 약 6.4배 광역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시·군·구를 더 광역화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근접성(近接性)의 민주주의'(démocratie en proximité) 요구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를 쇠퇴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기초자치단체의 구

역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郡)의 평균면적(664km<sup>2</sup>)이 서울시보다 넓은데 인구가 적다고 그 구역을 확대한다면 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거리가 멀어져 주민참여와 대민(對民)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질 것입니다. 예컨대, 강원도 홍천군은 인구 70,651명, 면적 1,817.96km<sup>2</sup>(서울의 약 3배)로서, 홍천군 4개를 통합해도 한나라당이 제시한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인구기준인 30만명에 미달하는데, 면적이 서울의 12배나 되는 것을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 춘천시·원주시 이외의 지역, 특히 영동지역을 어떻게 50만 또는 30만 규모로 묶을 것입니까? 전주시와 군산시는 전북도의 서부에 있는데 동부의 지자체들을 어떻게 묶을 것입니까? 무주·진안·장수에 남원·임실·순창까지 전북도의 절반을 통합해도 30만 명이 안 됩니다. 경북의 북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7~8개 군(郡)을 통합해야 하는 경우도 예견되는데 그 광활한 구역에서 민생(民生)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조는 인용자)

이러한 행정학적인 질문 위에 도서관 확충의 과제라는 문제를 겹쳐 보면, 영국의 디스트릭트와 일본의 시·정·촌과 미국의 муницип리티와 독일의 게마인데와 스페인의 муницип오스와 이탈리아의 코무니와 프랑스의 코뮌 등 각 자치단체 단위와 도서관 서비스대상 인구와의 연계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야기가 에둘러 전개된 셈입니다만,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는 도서관 확충의 문제는 단순히 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의 수라는 양적인 면에서 이제 질적인 면, 즉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근접성(近접性)의 민주주의 요구”로 바뀐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놓고 있는 ‘책읽는도시’의 정책은 이제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시민의 민주적, 자치적 역량과 연계하여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방정부가 근접성의 민주주의 요구에 대한 고려를 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읽는도시’의 시책을 어떤 양태로 펼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북돋아 나가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 3.

‘책읽는도시’의 비전이란 과연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의 세미나는 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의제인 ‘책읽는도시’란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독서문화, 도서관문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와 행정적, 재정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책읽는도시’라는 것이 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이 되고 또 주요 시책이 된다는 것의 근원적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김성주 위원장께서 “(작은)도서관의 비전을 스웨덴의 ‘스터디서클 민주주의’에 두고 싶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학습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체로 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켜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점이나, 윤명희 팀장께서 “책읽는파주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이웃과 세대와 집단이 서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상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이진홍 사무국장께서 “어린이들이 엄마 손잡고, 친구 손잡고 언제든지 찾아와 마음껏 좋은 책을 읽고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공간이 우리 동네에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꿈이다. 또한 그런 동네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실험을 통해 주민자치의 참 경험과 감동을 느끼고 주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할 때의 그 꿈,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과 김대호 소장께서 언급하는 ‘사람 중심’의 자치구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 속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지향을 우리는 언급해야 합니다.

‘책읽는도시’라는 비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의 조짐들을 확인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읽는도시’의 정책이 과연 ①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전략적 목적과 일관성을 갖는가 ②리더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③조직 구성원의 비전에 대한 인지형태는 어떠한가 ④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성과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⑤민주적이면서 자치적인 시민의 역량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14일 코엑스에서 열렸던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우리는 오늘과 비슷한 세미나를 조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2 지방선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읽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기에 이제 어느 도시를 우선적으로 말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은 전북과 익산시와 파주시와 관악구의 사례만을 언급합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진정한 '책읽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자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문화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2010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 주제발표  
2010년 9월 30일(목요일) 13:00~14:50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책읽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작은도서관 육성을 통한 전북의 경험

김 성 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라북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드넓게 펼쳐진 징계맹게 들판(김제만경평야)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만금이 연상되는 곳일 겁니다. 매우 풍요로울 것으로 생각되는 이미지와 달리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합니다. 인구의 지속적 감소 속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18%)와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1위, 등록 장애인수 1위를 차지하면서 복지재정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으며 전국 쌀 생산 1위를 차지하지만 요즘처럼 풍년이 달갑지 않은 시대에는 과잉생산에 따른 쌀 소비대책이 도정의 1순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전북, 인구감소를 걱정하는 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경제제일주의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문화와 독서와 학습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상상해보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사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는 왜 풍요를 누리면서도 불안해하는 걸까요. 좋은 직장, 사랑스런 가족, 나의 건강, 사회적 지위 등 지금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 평생학습사회구현을 목표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발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자기개발에 힘을 쏟게 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을 사람의 제1의 요구로 하자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학습이 제1의 요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 지혜를 얻고 삶의 용기를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 학습은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합니다.

학습을 통해 시민적 권리의 자각과 공동체 활동에 주체로서의 참여를 촉진 시킵니다.

○ 또한 **지방자치발전도 가능**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을 대신 집행하는 대리기관이 아니

라 스스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학습은 사교육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방과 후 사교육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갖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독서와 도서관이라는 즐거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여가놀이문화의 다양한 변화도 가능해집니다.

노래방과 술집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그 상투적인 놀이 대신에 학습이라는 새로운 놀이문화를 전파하고 싶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 작은도서관 프로젝트 시작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려면 그 거점공간이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평생학습실현의 공간으로 삼고자 작은도서관운동을 시작합니다.

왜 노래방, 술집, 여관은 넘쳐나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을 곳은 없는가? 자녀들에게 막대한 학원비, 과외비를 쏟아 부으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도서관, 공부방, 놀이터를 만드는 것에는 왜 인색한가? (김성주, 「작은도서관운동을 벌이자」, 『새전북신문』, 2006)

또한 100억을 들여 도내 학생 일부를 선정하여 해외어학연수를 보내자고 해서 논란이 된 ‘글로벌인재양성사업’에 대한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유학생 1,000명 보내는 것보다 작은도서관 100개를 만들어 하루 10,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100개의 일자리도 생깁니다. (2006.9 도정질 의에서)

결국 매년 100개의 작은도서관을 만들자는 요구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져 2007년부터 매년 10곳씩 작은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전북은 광역지자체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은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도서관을 세워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도서관은 활발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 업무를 추진해갈 주체가 필요합니다. 광역지자체는 건립지원 외에 도서관사업에 관여할 폭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업무 담당자는 건립을 담당하는 건축직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서관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도서관 전담부서의 신설**이 꼭 필요했습니다.

동네마다 도서관이 자리 잡은 작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북을 도서관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만들어 갑시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이 성공하려면 이를 추진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는 평생학습사회구현입니다. 평생학습사회구현을 위한 전북의 도서관정책을 펼치려면 사람과 조직, 거점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전북도에 도서관 전담직원이 필요합니다. (2007.11 도정질의에서)

전북은 이후 조직개편에서 문화예술과 내에 도서관진흥 담당을 신설하고 신규로 2명의 사서를 포함한 3명의 사서직을 두게 됩니다. 광역지자체의 도서관전 담조직은 경기도, 서울에 이어 전국 3번째입니다.

전북의 작은도서관은 시군에 따라 다른 운영형태를 씁니다. 군산시의 경우 시립도서관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직영방식이고 전주시는 민간위탁방식이며 익산시는 중간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의 지원도 달라 운영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작은도서관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는 전주시의 경우 주로 종교기관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탁이 많습니다. 옛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인후비전센터는 교회위탁으로 주로 아이들 위주 프로그램의 유료 운영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현재 주민센터 내에 입주한 호성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위탁하고 다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활성화된 사례입니다.

## 시민 독서동아리의 활동

책읽는도시,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입니다. 2002년 전주에서 5명의 직장인으로 시작한 독서토론 모임인 '리더스클럽'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평생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독서·정보 공유를 위해 독서토론 및 다양한 세미나(저자초청,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독서문화 활동과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매주 독서토론 참여인원 120명, 인터넷회원(<http://cafe.naver.com/readersforum>) 1,500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익산과 군산에서도 독서토론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결과 지난 200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학습동아리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리더스클럽 모임들>

요 일	모임시간 / 장소	비 고
월요일	19:30~21:00 / 전주교보문고(이음홀)	직장인들이 주로참여 인문, 소설, 수필 위주
화요일 (익산)	05:30~07:00 / 미즈베베산부인과	익산 '책보세' 독서모임 직장필독서.인문.경영 등
금요일	06:50~08:40 / 전주코아호텔(13F 세미나실)	CEO독서토론 모임 경제.경영.마케팅서적 위주
토요일 (전주)	06:40~09:00 /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강의실	리더스클럽 토요일모임 직장필독서.인문.경영 등
토요일 (군산)	06:40~09:00 / 신한생명 (수송동) 4F 메트라이프생명	리더스클럽 토요일모임 직장필독서.인문.경영 등
일요일 (익산)	19:30~21:00 / 미즈베베산부인과 1F 세미나실	익산'책보세'일요독서모임 인문.경영,문화.교양관련서적

현재 전주에는 수십 개의 독서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21단체가 모여 '전주시민독서동아리포럼'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모임으로는 송천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책모임on'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강좌 수강생 위주로 운영하는 '행복한 화요일에 책읽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주시 독서모임 현황(2010년 현재)>

연번	동아리명	모임시간	장소
1	리더스 클럽	월요일 19:30~21:00	전주교보문고(이음홀)
		금요일 06:50~08:40	전주코아호텔
		토요일 06:40~09:00	효사랑병원
2	책모임 온	목요일 10:00~12:00	송천도서관
		화요일 10:00~12:00	송천도서관
3	인 생	수요일 20:30~22:30	회원 자택
4	동화읽는어른모임	월요일 10:00~12:00	완산도서관
5	어울림	토요일 10:00~12:00	완산도서관
6	열린어린이연구소	토요일 15:00~17:00	전북대 평생교육원
7	청솔모	토요일 09:00~12:00	서신도서관
8	영어로놀아주는부모	목요일 10:00~12:00	완산도서관
9	담쟁이	금요일 13:30	금암도서관
10	어우가지	토요일 09:30~12:30	가나안 복지관
11	하늘타리	월요일 10:00~12:00	회원 자택
12	삼천3동 독서토론회	월1회 화요일18:00~20:00	삼천3동 주민센터
13	동시읽는어머님모임	월 1회	인후문화의집
14	여성다시읽기	월 2회	인디자인 사무실
15	등근마음	화 10:00~12:00	전북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16	독서모임 봄	월 1회 금 19:00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17	생각콘서트	수 13:00~	평생학습센터
18	아모		삼천도서관
19	서신도서관 독서모임	금 10:00	서신도서관
20	아름드리 책보따리	월 10:00	경기전
21	행복한 화요일에 책읽어	화 19:00	전북환경운동연합

## 성과와 문제점

- 작은도서관지원에 따라 2006년 4곳에 불과하던 작은도서관이 63곳(2010

년말 조성 포함)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인구 비중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작은도서관지원은 민간에서의 작은도서관 조성 붐을 일으켰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초기에는 주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설치되었으나 해가 지날수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민간의 자발적 설립이 늘어났습니다.

○ 또한 **문화예술과 내에 도서관진흥 담당(계)을 신설**하여 도서관 전담부서를 만들어낸 것도 큰 성과입니다. 공무원 정원 제한과 정부의 10%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서를 별도로 채용하고 부서를 신설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 작은도서관 건립과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라북도 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2009.9)를 제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2010년 현재 한 곳당 1,200만 원(도서구입 5백만 원, 운영비 7백만 원)씩 모두 47곳에 대해 총 5억 7천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전문사서를 갖지 못한 작은도서관에 순회 사서 10명을 배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 또한 안고 있습니다.

○ 우선 **광역지자체 역할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과 집행의 분리로 각 시군에 힘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마다** 단체장의 도서관에 대한 의지와 이해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 분관 개념으로 가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을 단지 규모가 작은 민간도서관으로 이해하는 한 공공도서관정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 가장 큰 어려움은 평생학습사회와 독서운동에 대한 **시민사회활동의 미성숙**을 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독서를 통한 학습은 시민사회의 의제 형성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의식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선 자발적 주부운동은 한계를 갖게 됩니다. 평생학습사회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도서관은 주로 아이들의 책읽기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성인독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 의도가 실현되지 못합니다.



○ **지자체의 적은 지원과 무관심도 큰 걸림돌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기초지자체로 나누어진 평생학습 업무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평생학습 시행의무가 광역지자체로 넘어왔다지만 아직 본격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비전과 향후 과제

작은도서관의 비전을 스웨덴의 '스터디서클 민주주의'에 두고 싶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학습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체로 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켜가고 싶습니다.

다시 민간의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각종 독서동아리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1작은도서관 1독서동아리'운동이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시민들의 학습공간으로 제공하여 자발적 독서동아리를 지원 육성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영비와 전문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남겨진 과제입니다. (\*)



2010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 주제발표  
2010년 9월 30일(목요일) 13:00~14:50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 파주, '책읽는도시'로의 출발

윤 명 희

파주시 평생학습과 도서관정책팀장



## 1. '책 읽는 파주'의 시작

파주시는 1996년 도·농 복합도시로 승격된 이후 SOC 투자를 통한 도시 기반 시설의 조성, 산업단지 조성, 녹지 공간의 확대 같은 전략적 과제들을 실천해 오면서 인구 증가 및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특히 민선 4기를 지나면서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유비쿼터스 기술이 채택된 U-city 건설, LG Display단지 조성과 더불어 출판단지, 헤이리 예술마을, 영어마을 등의 조성이 마무리 되면서 경제와 문화 교육 인프라까지 구축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가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히 진전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심해지고 공동체 의식은 갈수록 희박해져 지역이기주의 및 집단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었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된 고급문화는 기존의 향토문화와 더불어 질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공공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 문화와 교육 활동을 통해 집단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궁극적 역할로 인식하여 왔다. 그래서 도서관을 찾는 주요 핵심 이용자 그룹을 조직화하고, 책을 사랑하는 시민 소그룹과의 만남을 통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 위원 위촉, 시민자원봉사단 구성, 민간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 병영 및 학교 도서관 지원,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의 운영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발전하였고, 이를 통해 파주시 곳곳에 도서관 서비스를 함께 고민할 거점을 마련해 왔다.

2008년도에 추진했던 '책 읽는 파주 2008: 내 인생의 책 한 권' 사업은 바로 이런 도서관의 역할 인식 속에서 각 계의 시민과 협력하여 이제까지의 병렬적 사업들을 '책 읽는 파주' 라는 과제로 통합해 보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 그러나 협력과 소통 방법의 미숙함,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지 부족 등으로 인해 도서관 단위 조직을 넘어 파주시 전체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2010년, 이제까지 시민의 기본적 안전과 질서를 강조해 오던 시정방침은 책 읽고 글 쓰는 문화도시로 초점이 옮겨졌고, '책 읽는 파주'는 시정의

1) 파주시. 2009. 파주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2010~2015. 43-45.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 인구 5만 명당 1개 공공도서관 조성, 1만 명당 1개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는 주요계획은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쉽게 책을 읽을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로써 도서관은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을 시 전체 차원으로 확산시켜 시민 문화역량 강화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중요한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2. '책 읽는 파주'의 설계

### 1) 계획 수립 시 점검사항: 방향설정

'2010 책 읽는 파주 추진계획'은 2008년의 시행착오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방침에 따라 시작했기 때문에, 계획이전 단계에서부터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계획이전의 방향설정 단계에서 고려되었던 점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도서관과 사서들을 중심으로 계획과 집행이 실행되도록 한다. 이것은 제대로 해 보자는 내용성의 문제이며, 도서관과 사서가 제 역할을 찾아보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독서 진흥 사업은 민간단체나 학교와 같이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도서관과 사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은 책이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독서행위를 일상적으로 독려하고 권장하는 사회적 기구이다. 그리고 사서들은 시민의 독서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책 읽는 문화가 일회적인 전시성 행사의 일환이 아니라면, 독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할 시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의 집단과 기관을 중심으로 책 읽는 사업 들이 기획되어야 한다.

둘째, 각 도서관별로 중복 또는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던 프로그램을 책 읽는 파주 실현의 과제 속에서 통합 재편하여야 한다. 그동안 도서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분석 및 시민의 요구 보다는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기획되어 즉흥적이고 산발적으로 가짓수만 증가시킨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전체 시민의 요구와 각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도서관과 사서들

이 지나친 행사중심의 사업들로 인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밀도 있게 계획된 사업을 통해 힘을 얻고 자부심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셋째, 조성에서 운영까지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방법과 통로를 다양하게 모색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자치단체 시민교육프로그램에서 시민의 참여는 계획과 추진방법들이 모두 결정된 이후 동원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책 읽는 파주'는 개인의 읽는 행위를 자치단체에서 독려하려는 것이고,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지역적 유대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이 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그룹의 요구가 반영된 시민의 참여가 없이는 단지 그럴듯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 집행담당자들은 '책 읽는 파주' 사업이 시민과의 협력과 소통 과정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진정성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여 매시기 매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내야 하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조직 속에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책 읽는 파주 사업을 어떻게 가시화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도서관이나 사서가 중심이 된 사업들은 자치단체의 여타 사업에 비해 드러나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연간 계량화된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표하여 이에 도달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시화된 목표와 성과를 적시에 알려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주체들의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일하는 방식이 타 부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2010 책 읽는 파주 추진계획'의 수립

위와 같은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2010 책 읽는 파주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내부결재과정을 통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수정이 불가피했다. '2010 책 읽는 파주 추진계획'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1) 도서관 인프라 확충

책 읽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곳곳에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2010년 책 읽는 파주 추진 사업의 핵심이다. 파주시는 672.45km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에 인구는 338,193명(2010년 4월 현재)이다. 향후 교하택지가 완료되는 시점의 인구는 50만 명을 추산하고 주변지역 인구 증가까지 고려한다면 2020년에 인구 75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구 증가는 파주 지역 내에서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금촌 및 교하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인구 불균형에 따르는 문화 교육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보·문화·교육 기능을 포괄하는 도서관을 곳곳에 조성하려는 것이다.

파주시 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 5개소와 공립 작은도서관 1개소, 민간 작은도서관이 38개소 신고되어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병영도서관 4개소가 조성 운영되고 있다.

2010년 도서관 인프라 확충 계획은 주민밀집지역에는 80평 이상의 공공도서관 6개소 건립, 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은 10평 이상의 작은도서관 5개소 조성,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는 각 도서관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확립한다는 3가지 측면에서 계획되었다. 또한 군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병영도서관도 2개소 조성할 예정이다. 2010년 확충될 도서관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2010년 도서관 조성 계획

도서관	도서관명(가칭)	면적(m <sup>2</sup> )	위치	착공	준공·개관
공공 도서관 (6)	적성	2,200	적성면	'09. 6	'10. 4
	조리푸르지오	613	조리읍	'10. 3	'10. 7
	교하A8블럭	2,000	교하읍	'10. 5	'10. 12
	문산행복센터內	330	문산읍	'09. 10	'11. 5
	발전소 주변	816	교하읍	'10. 9	'11. 4
	금촌1동복합센터內	2,000	아동동	'10. 9	'11. 12
작은 도서관 (5)	광탄면사무소	78	광탄면	'10. 2	'10. 3
	월롱면사무소	70	월롱면	'10. 2	'10. 3
	파평복지회관	70	파평면	'10. 4	'10. 7
	(폐)금곡초교	133	금곡리	'10. 8	'10. 9
	탄현면	114	법흥리	'10. 11	'10. 12
병영 (2)	적성/ 파주	2개소	적성/ 파주	'10. 11	'10. 12



또한 2002년부터 시작해 왔던 민간 작은도서관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였다. 여러 가지 유형의 민간 작은도서관을 실질적 요구에 맞게 지원방법을 다양화하고, 차등화 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 파주시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파주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다시 도서관 운영위원회내에 작은도서관 평가 소위원회를 두어 매년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를 실시하였다.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5년 이상 공공성과 지속성을 인정 받은 작은도서관은 운영비를 포함한 자료구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평가기준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은도서관은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자료구입비를 차등 지원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으로 도서관이 있어야 할 곳에는 조성비까지 지원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운영비를 연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주택건설기준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 승인 과정에서 각 건설업체가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작은도서관 설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준공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제를 실시하여 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표 2> 2010 파주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계획

지원방법	지원대상	지원개수	비고
평가 후 지원 (서면, 현지)	우수	3개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및 운영비 지원
평가 후 지원 (서면, 현지)	활성화 유도	7개소	운영 수준을 고려하여 자료구입비 차등 지원
조성 후 지원	목적의식적 조성이 필요한 곳	2개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및 운영비 지원
공모제	70㎡이상의 공공시설 또는 공동시설	2개소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

파주시에에서 사립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했던 이유는 민간의 작은도서관이 부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거점으로서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도서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참여가 가능한 민간의 도서관 운영자를 공공도서관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할 시민 지원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하에 민간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협력을 유지해 왔다.

협력관계를 통해 작은도서관 평가사업을 체계화하였고, 도서관학교, 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 작은도서관 순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 2) 관내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도서관의 장서량은 한정된 공간으로 제한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서관 통합서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여 관내 전체 도서관의 자료와 정보를 모든 도서관에서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는 이 사업은 시민들은 물론 민간 작은도서관 및 예산부서와 기획부서의 협력을 구해내는 데 매우 설득력 있는 사업이다.

<표 3> 파주시 관내 상호대차시스템 단계별 구축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서버구축</li> <li>- 회원 및 장서 DB통합</li> <li>- 통합검색 관리 효율</li> <li>· 통신인프라 속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FID시스템 구축</li> <li>- 중앙 및 분관</li> <li>- 대출반납 절차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대차시스템 구축</li> <li>- 택배서비스를 통해 관내 어느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대출 반납</li> </ul>

## 3) 광범위한 시민참여 행사 개최

이것은 파주시 곳곳에 조성된 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이 책 읽고 글 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개최하는 것이다. 즉, 단위 도서관의 행사들이 지역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궁극적으로 책읽는 파주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총괄되어야 하며, 동시에 단위 도서관 활동의 이런 힘을 모아 파주 시민 전체의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했다. 또한 이것은 도서관만의 주도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과의 많은 의사소통과 공론화 작업들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시민간담회, 소그룹 토의, 지역 관련자와의 개별적 만남 등을 가지면서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안으로는 책읽는 파주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밖으로는 각 계 전문가와 지역 독서관련 단체를 포함하는 책읽는 파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책읽는 파주 추진협의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견 교류와 소그룹 회의 등을 거쳐 책읽는 파주를 위한 기반조성과 성과구축의 2가지 기조로 2010년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

갔다.

먼저, 책 읽는 파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로써 파주시는 시민의 독서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시민 누구나 생활단위에서 책 읽는 습관을 일상화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1인 1독서동아리 갖기 운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3인 이상만 모이면 독서동아리를 만들고 책을 읽고 이야기하자는 뜻으로 ‘동네방네 책이야기방’(동네책방)이란 사업명도 만들었다. 지금은 이런 취지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도서관을 중심으로 많은 독서동아리를 만들게 하고, 확대시켜, 파주시 곳곳에 책이야기 꽃이 활짝 피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독서동아리가 많은 학교나 마을에는 ‘책읽는 교실’, ‘책읽는 마을’ 과 같은 인증패를 달아서 책 읽는 작은 동아리들이 많아져서 책 읽는 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파주출판단지나 헤이리 등 인근 관련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토론 공간, 도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4) 지속적 교육과 홍보

책 읽는 파주는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해를 통해 무엇을 협력하고 협의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 사업은 이런 과정을 통해 동의를 구한 사람들을 확보해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해 지향점에 대한 합의를 내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교육과 홍보는 매 사업시 파주시 도서관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시민들과 도서관을 가깝게 연결시키는 일이다.

읍면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도서관을 새롭게 이해하기 계기가 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도서관 주민 교육을 통해 책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해하고, 도서관이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임에 조금씩 동의하게 되었다.

또한 책읽는 도시에 대한 사서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을 통해 사서들의 인식을 강화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 5) 도서관 조직개편 및 인력확충

파주시는 책 읽는 파주를 추진할 전담 조직으로 도서관 조직을 개편하여 평생학습과 내에 도서관정책팀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운영을 전담하는 도서관 조직과 시책 업무 중심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된 것이다. 이런 조직 형태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뚜렷한 성과와 한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운영과 집행이 분리된 조직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인식과 한계 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각 부서 기관장의 리더십 또한 성공의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확충되는 도서관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는 이런 협력의 토대아래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 4. 점점, 그리고 한 발 앞으로...

지난 2월 도서관정책팀에서 책읽는 파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공공도서관 2개소를 개관하였고, 작은도서관 3개소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시민들과의 회의, 토론, 타부서와의 토론 등으로 많이 시간이 흘렀다. 7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그 성과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는 아직도 시작에 불과한 한 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었던 내용들이 실행단계에서도 원칙으로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는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확산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하고, 어떤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까? 이미 7개월 사이에 민선 5기로 시장이 바뀌면서, 조금씩 상황의 변화를 겪고 있다. 물론 파주시의 시정방향은 소통과 참여로서 책읽는 도시의 궁극적 목적과도 닿아 있다. 그러나 이의 실천 강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이제까지의 참여자들의 의지를 다시 묶어내고, 이런 의지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시

스텝화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파주시의 책 읽는 도시로의 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의 요건은 바로 파주시가 진정 책 읽는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가? 의 문제이다. 즉 진정성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법령을 정비하고 사람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제들을 가장 근원적인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다.

책 읽는 파주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은 이웃과 세대와 집단이 서로 서통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다시 상기 할 때, 우리는 그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다독이며 챙겨가며 급하지 않게 더딘 한 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



2010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 주제발표  
2010년 9월 30일(목요일) 13:00~14:50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꿈꾸며

이 진 홍  
익산희망연대 사무국장





## 1. 들어가며

익산시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시장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정책협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9년 9월에 열린 시장간담회에서 익산희망연대는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 정책을 익산시가 주요시책으로 삼고 이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 TF팀을 결성할 것을 정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독서문화사업을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민관 TF팀 운영을 통해 행정의 민첩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용·반영하겠다는 우리들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시작한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위한 익산희망연대의 여러 시도와 노력, 고민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익산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특히 민관협력 과정에서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실망도 하고, 어떤 때는 희망도 느끼고 있다. 이번 도서관대회의 주제 '책읽는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통해 타 지역의 좋은 사례와 경험을 많이 배우고자 한다.

## 2. 왜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제안했나?

### 1) 꿈은 커지고 자란다

익산희망연대는 2003년 작은 꿈이 하나 있었다. 어린이들이 엄마 손잡고, 친구 손잡고 언제든지 찾아와 마음껏 좋은 책을 읽고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공간이 우리 동네에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꿈이다. 또한 그런 동네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실험을 통해 주민자치의 참 경험과 감동을 느끼고 주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삼성동 주민자치센터의 작은 공간에 동네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로 운영한 일이다.

삼성동 어린이도서관을 개관 이후 4년 동안 상주직원 없이 100% 지역주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운영했다. 매주 3시간씩 꼬박꼬박 약속을 정해 책을 대출하고 반납, 정리하는 일을 하는 도서관 지킴이의 역할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까지 모든 것은 지역주민들의 몫이었다. 때

달 자원봉사자들 전체가 모여 도서관의 살림살이부터 운영, 프로그램까지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고 역할을 분담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도서관 서비스의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운영주체로서 주인이 된 것이다. 작은 동네도서관에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된 것이다.

우리는 삼성동에서 동네 어린이도서관을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며 꿈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이제 삼성동을 넘어 익산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꿈이었다. 2006년 익산시장에게 작은도서관 조성 종합계획을 세울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고맙게도 익산시장은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 2007년부터 5년 동안 매년 2개소씩 총 10개의 작은도서관을 세우겠다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12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익산시가 더 욕심을 내 2013년까지 100개의 작은도서관을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공언하고 있어 오히려 너무 과하다고 우리가 말리고 있는 실정이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운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익산시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어 큰 힘을 보태주었다. 작은도서관 조성이 익산시의 주요시책으로 자리 잡고 조례까지 제정되면서 예산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2008년부터는 익산시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1개소당 1천 5백만 원의 운영비(인건비 1천 2백만 원, 도서구입비 3백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꿈이 현실로 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동네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에 들러 친구들과 책을 읽으며 지혜를 배우고, 아름다운 꿈을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꿈을 꾸고 있다.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시설과 공간이 들어서고 있고, 공공도서관도 현재 신축 중인 2개관이 개관하면 총 6개관(지자체 4개소, 교육청 2개소)이 된다. 이처럼 도서관 인프라가 차츰 갖추어져 가고 있다면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에 책읽는 문화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 2) 도서관정책과 독서문화진흥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익산시의 도서관시설(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등)은 최근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제는 도서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것

과 더불어 통합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독서문화진흥정책의 장단기적인 로드맵과 실행이 필요하다. 익산시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여러 사업들이 있다.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북스타트, 독서의 달 행사, 가을 책문화잔치 외에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병렬적으로 나열되어있다.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운동은 익산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시립도서관 중심의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독서의 달 행사, 가을 책문화잔치 등 특정 계기에 열리는 행사들은 이벤트성 행사로서 지속성이 낮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을 비롯한 전 계층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사업들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도서관정책과 독서문화진흥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도시의 경쟁력과 수준은 사람에 달려있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과 문화 측면에서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 추진을 통해 도시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교육·문화·복지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며, 시민들의 수준이 도시의 수준을 판가름하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 책읽기를 통해 시민들의 지적능력과 창조력, 감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책을 통해 깨어있고 성찰하는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 3.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 추진과제 설정

2009년 11월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TF팀이 익산시립도서관 주관 아래 결성되었다. 익산시립도서관, 익산교육청,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익산지부, 익산농촌교육연구회(교육단체), 익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동양기전(독서경영기업), 익산시작은도서관협의회, 익산희망연대(지역시민단체), 책으로꿈꾸는세상(독서단체) 등 지역의 독서운동과 관련 있는 총 9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익산희망연대에서는 의제를 최초 제안했던 단체로서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민관 TF팀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정책목표

- 도서관 소외지역과 소외계층 없이 익산시민 누구나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도서관기반 구축
- 지식정보와 인적자본이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맞추어 창의성과 통합적 사고력을 갖춘 시민 양성
-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도서관의 주인으로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 구현

### 2) 추진방향

- 도서관 시설·자료·인력 등 인프라의 점진적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역 내 관종을 뛰어넘는 협력체계 및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

### 3) 추진과제

#### ① 도서관 인프라 확충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내실화
  - 작은도서관 100개 조성계획 재검토
    - 공립형, 사립형 작은도서관 조성과 학교마을도서관 개방 등 포괄적 검토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작은도서관 지원 및 관리운영지침 마련
    -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시민사서 양성교육 실시
-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 학교가 각 마을단위의 평생학습센터로, 사회공동체 복원의 문화공간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면서 지역재생 및 학습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마을도서관에 리모델링, 도서구입, 사서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
- 전담사서 양성교육 및 세미나 실시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장애인대상 도서관 이용조사 실시  
(이용현황/프로그램, 자료, 편의시설 등 불편사항 파악/요구조사 등)
- 점자, 음성도서 등 대체자료 확보
- 장애인 책배달 서비스 및 책 읽어주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 고령자

- 공공도서관에 노인을 위한 독서문화 정보공간 별도설치 운영
- 큰활자 도서 비치, 도서관 독서확대기 설치, 돋보기안경 비치

○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 공공도서관에 다문화가족 자국어(소수민족언어) 장서확보 및 제공
- 마한교육문화회관 분관, 익산노동자의집 등에 다문화작은도서관 조성

□ 도서관 장서확충

○ 익산의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양은 1인당 1.2권 수준임  
(시립 23만 권, 교육청 15만 권)

※ 주요 선진국 평균 2.76권

- 도서구입비 확대
- 범시민 도서모으기 운동
- 1사(社) 1도서관 자매결연 운동

□ 관중, 분야별 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 시립, 교육청, 대학, 작은도서관 등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익산도서관협력추진위원회 구성(시립, 교육청, 대학, 작은도서관 등)
- 익산도서관축제 개최(세계 책의 날 기념, 매년 4월 23일)

□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

-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 책읽는 문화도시 추진업무 전담인력 확보

- 도서관 정책팀 신설
  - 전담 공무원(사서) 업무배치를 통한 기획, 추진력 강화

② 독서문화진흥시책

□ 수요조사와 제도정비

- 익산시민 독서실태조사 실시(2~3년마다 1회 조사)
  - 독서경향, 도서입수행태, 인터넷 도서서비스 이용실태, 독서생활의식, 독서환경, 독서진흥방안 등을 내용으로 함.
- 익산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

□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

-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연계학습 운영(시민사서 활용)
  - 도서관을 정기 방문하여 도서관 이용법 및 독서법 등 교육, 독서활동, 도서대출 및 반납활동 진행
- 직장인 대상 독서교육 실시 및 독서동아리 지원
- 가족단위 참가 독서프로그램 개발·운영
- 도서관·학교·직장·단체·마을 등 단위별 자발적인 독서회 육성지원

□ 독서운동 전개

- 민간단체 대상 독서활동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
- 북스타트 운동과 One City, One Book 운동 평가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세계 책의 날(4. 23) 주간에 맞춰 익산도서관축제 개최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독서운동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
- 언론매체를 활용한 책읽기 프로그램, 캠페인 전개

이상의 익산희망연대의 기초제안서를 바탕으로 약 4개월간의 검토와 토론을 통해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과 20개의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하였다.

<표1>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방향	추진과제	비고
제도정비	1.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 2.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2010년 2010년

수요조사 및 시민의견수렴	3. 익산시민 독서실태 조사 실시 4.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 5. 독서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워크숍 개최	2011년 2010년 2010년
민관협력체계 구축	6.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추진협의회 구성	2010년
행정전담인력 확보	7. 도서관 정책담당부서 신설	협의필요
독서운동 인력양성	8. 시민사서 양성교육 실시 9. 영·유아 독서지도활동가 양성교육 실시	2010년 2010년
독서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10. 도서관 장서확충 - 도서 모으기 운동, 1사 1도서관 결연 11.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평가계획 마련 12.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	2011년 2010년 장기계획
독서운동 및 관련행사 지원	13.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운동 전개 14. 북스타트 운동 전개 15. 민간단체 대상 독서운동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계속사업 계속사업 2010년
소외 계층의 독서활동지원	16.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대출 17. 독서장애이용 대체자료 제작 및 확보 18. 다문화작은도서관 조성	2010년 2010년 2011년
홍보 및 분위기 확산	19.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선포식 20. 지역 언론사와 독서운동 캠페인 전개	2011년 2011년

2010년 추진 중인 사업은 독서문화진흥조례가 2월 26일 제정되었으며,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익산희망연대 사회창안사업과 연계하여 6~7월 추진하였다. 또한 시민사서아카데미가 4개월 과정으로 약 80여 명이 참여하여 9월부터 진행 중이다. 그리고 '한 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운동'과 '북스타트 운동'은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운영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2006년에 제정된 '작은도서관설치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등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다.

#### 4. 성과와 과제

1) 민간차원에서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범시민운동들이 거의 대부분 관에서 기

확하여 주도하고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삶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컸다. 하지만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운동은 아래로부터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하고 열정을 가진 민간단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시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성과라고 본다.

#### 2)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제정되었다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동구와, 광주광역시 서구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2010년 2월 26일 '익산시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담고 있다. 또한 민관이 참여하는 11명 이내의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두어 독서문화진흥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 3)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시책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익산시는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 정책을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데 있어 기본이며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바라보기보다는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캠페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다보니 인력과 예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도서관 조직과 사서를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진흥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중심기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도서관시설을 관리운영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서 정도로 그 위상을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 4) 정책담당부서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도서관정책 수립 및 평가, 공공도서관 건립,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추진, 독서문화진흥사업 기획 및 전략적 홍보,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 통합도서관시스템 구축, 민간단체 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 도서관 협력사업 및 협의체 운영, 학교도서관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부서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



책담당부서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도서관조직과 사서들의 위상을 높이고 성장시킨다는 관점에서 시청 외부조직(사업소)이더라도 시립도서관 내에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정책과 책읽는 문화도시 정책이 시정의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 잡고 예산, 인력, 정책 결정에서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갖기 위해서는 본청에 설치할 것을 주장해야 하는지가 아직도 우리의 고민이다.

## 5. 마치며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운동은 현재 시작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조직과 사서들도 부족한 인력에 따른 업무과중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자신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논의는 되고 있지만 신속한 정책결정과 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익산희망연대 회원들과 함께 ‘책읽는 도시 김해’를 답사하며 선진사례를 배우고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7월에는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안찬수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책 읽는 문화가 사람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책 읽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실험과 사례 등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익산시민들과 현장의 학교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교육청 한원경 장학관을 모시고 대구시교육청이 독서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 다양한 추진사례와 성과, 어려웠던 점, 향후 계획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10월에는 익산시와 익산희망연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익산시민창조스쿨’이라는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에 시민들과 함께 팀을 구성 참여하여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해 볼 계획이다.

‘책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운동의 속도가 조금은 더디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만들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고자 한다.

(\*)



2010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 주제발표  
2010년 9월 30일(목요일) 13:00~14:50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 서울 관악구 희망의 도서관 프로젝트 구상과 실행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1. 관악구청장 후보 유종필의 도서관 관련 공약

- 예비후보자 공약집(공직선거법 제60조의 4에 근거) -

1) '시민의 대학' 도서관의 힘으로 관악구를 수준 높은 지식문화 도시, 지식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지식 정보 혁명 시대의 도서관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보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도서관장 시절, 전세계 주요국의 도서관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주요 도서관을 돌아보니 과연 미국은 과거는 없지만 미래는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과거가 없음을 한탄하는 대신에 그만큼 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도서관과 사서의 위상이 높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갖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긴다고 합니다. 대통령 이름을 앞에 붙인 기념관이 아니라, 도서관이 많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를 조성할 때 학교,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도서관을 우선 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요 도서관이 도시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저는 관악구의 힘으로, 대한민국 도서관의 올바른 기능과 위상을 확립하여, 지식세대와 대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창창하도록 만들겠습니다.

1-1) 걸어서 10분 거리에 수많은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세계 최고의 거부로서 틈틈이 도서관에 기부하는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것은 조국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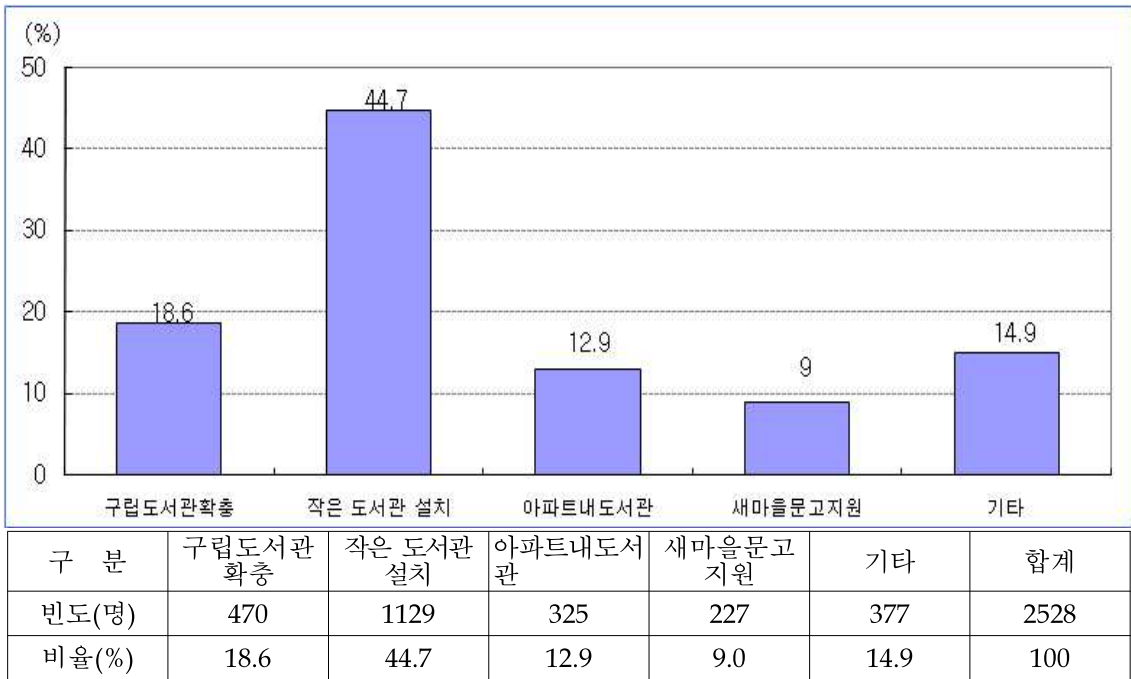
빌게이츠는 젊은 시절 방황할 때 집 가까운 도서관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고 영감을 받아 창업에 나섰고, 끝내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미래 한국의 수많은 빌게이츠를 위해서는 큰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3월 11일 ~ 3월 12일, 관악구 도서관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더피플

(thePEOPLE)' ARS설문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설문 문항의 요지는 '관악구 도서관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정책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시한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구립도서관 대폭확충, 2) 집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작은 도서관 다수 설치, 3)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설치, 4) 새마을 문고 대폭지원, 5) 기타

조사 결과는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작은 도서관 설치'를 지목하신 분이 4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구립 도서관 확충'을 지목하신 분이 18.6%였습니다.

<도서관\_전체 결과>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구립도서관 확충을 지목하신 분이 무려 30.5%로 특별히 많았고, 30대는 작은 도서관 설치를 지목하신 분이 54.1%로 특별히 많았습니다. 한편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아파트 내 도서관을 지목하신 분이 15.8%로 비교적 많았고,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아파트내 도서관을 지목하신 분이 14%로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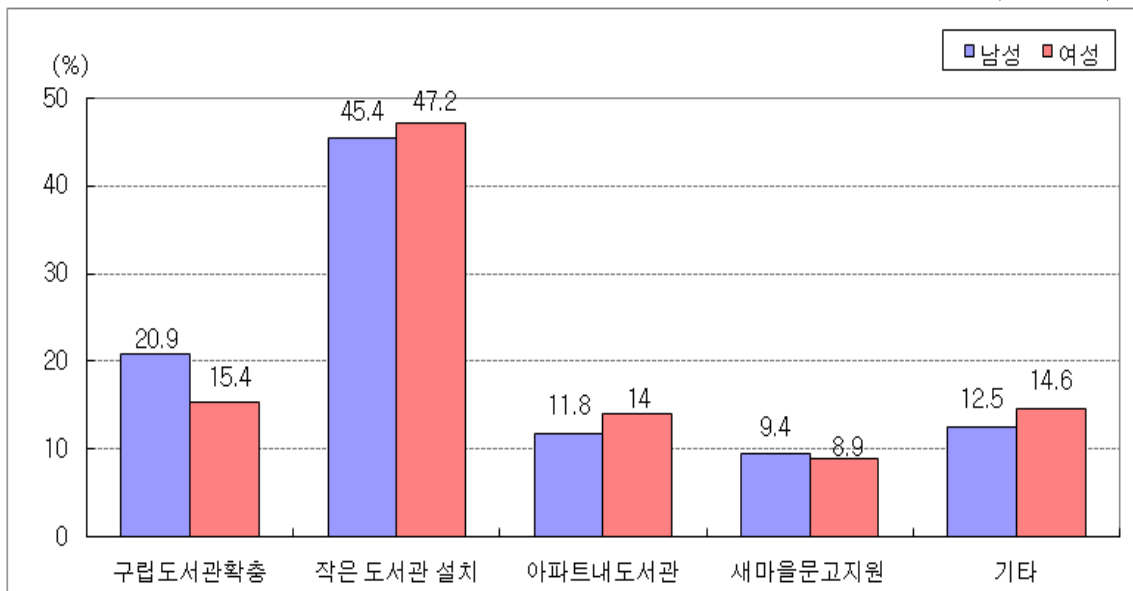
<도서관\_연령별 결과 >

(단위: %)

구 분	구립도서관 확충	작은 도서관 설치	아파트내 도서관	새마을문고 지원	기타	합계
20대	30.5	46.3	8.5	3.7	11.0	100.0
30대	13.0	54.1	15.8	8.2	8.9	100.0
40대	17.1	46.4	11.5	12.5	12.5	100.0
50대	17.8	47.0	13.3	10.8	11.1	100.0
60대이상	18.8	44.6	12.7	7.5	16.4	100.0

< 도서관\_성별 결과 >

(단위: %)



구 분	구립도서관 확충	작은 도서관 설치	아파트내 도서관	새마을문고 지원	기타	합계
남성	20.9	45.4	11.8	9.4	12.5	100.0
여성	15.4	47.2	14.0	8.9	14.6	100.0

현재 관악구의 도서관은 많이 부족합니다. 공간과 좌석도 부족한데, 그나마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난곡, 난향, 삼성, 서림, 신원 서원, 신림, 남현동 등에는 공공 도서관이 없습니다. 또한 책과 자료(디지털 자료 포함)도 부족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도서관의 대 고객=이용자 서비스 마인드도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약간 왜곡되어 있습니다. 각종 통과 시험(고입, 대입, 고시, 공시) 공부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아파트 내 도서관을 포함한 작은도서관 설치에 앞장 서겠습니다.

<관악구 도서관 현황>

도서관 명	총 좌석수(석)	보유장서(권)
관악문화관 도서관(대학동)	532	133,855
글빛정보 도서관(청림동)	139	38,077
성현동 작은도서관	84	24,170
은천동 작은도서관(2009.12월개관)	76	6,742

1-2) 도서관 관련 예산을 임기내에 3배로 늘리고, 특히 책, 자료(특히 디지털 자료) 구입 예산과 평생학습 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민선 4기 관악구는 3대 비전의 하나로 교육복지 도시를 내세우고 있고, 4대 정책의 하나로 '교육 특별구 관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서관이 빠져있습니다. 심지어 12대 중점 시책의 하나로 '평생학습도시 관악 구현'이 설정되어 있지만 역시 도서관이 없습니다.

현대의 평생학습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고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직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양 강좌와 문화 강좌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나 이모작 삼모작 인생을 개척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도서관 예산은 행정지원국 산하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며, 예산은 문화예술 기반 확충 사업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2010년 도서관 관련 예산은 4개의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27억 4,841만원과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4억 1백만원-이는 100% 서울시 예산입니다-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에 1,5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6,620만원(구비는 불과 1,000만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에서 자료 구입 예산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관악구 도서관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관악문화관도서관의 운영비 총액은 20억 9,050만 3천원인데, 이 중 자료구입비는 불과 2%인 4,090만원입니다. 이는 도서 구입비 3,750만원(15,000원\*2500권)와 비도서 구입비 340만원(4,000원\*100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9억 9,124만원, 국민연금 등 부담금 1억 9,097만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2,224만 2천원, 시설유지관리비 4억 405만8천원, 문화행사 1억 2,760만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해당하는 글빛정보도서관은 좀 나운데, 운영비 총액 2억 6,275만 2천원 중 자료구입비는 2,250만원이며, 성현동 작은도서관은 운영비 총액 1억 6,207만 7천원 중 자료구입비는 2,250만원, 은천동 작은도서관은 운영비 총액 2억3,152만원 중 자료구입비는 3,750만원입니다.

<2010년 관악구 도서관 관련 예산 현황>

부서·정책 세부사업				2010년 예산액	2009년 예산액	비교증감
관악구				326,524,000	319,620,000	6,904,000
	문화체육과			8,735,078		
			국비 28,100 시비 966,857 구비 7,721,561 기금 18,560	9,172,422		-437,344
	문화도시조성			3,697,512	4,639,407	-941,895
			국비 28,100 시비 470,850 구비 3,198,562			
	문화예술기반 확충			3,342,622	4,223,507	-880,885
			국비 28,100 시비 470,850 구비 2,843,672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			15,000	25,000	-10,000
	조원동 공공도서관 건립			401,000	1,233,000	-832,000
			시비 401,0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66,200	76,000	-9,800
			국비 28,100 시비 28,100 구비 10,000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2,748,412	2,762,247	-13,835
			(관악 2,090,503 글빛정보 262,752 성현동 162,077 은천동 231,520)			

1-3) 도서관에서 living library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Living Library'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객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을 도서관이 모셔서, 만남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카페나 회의실에서 일정시간 대화를 나누는 이벤트입니다. 이는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 예버겔이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Roskilde Festival)에서 창안한 것으로 유럽에서 시작되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개념의 '이벤트성 도서관'입니다.

'Living Library'는 '책'으로 자명한 다양한 사람들(저자, 명사, 전문가, 대가, 기업가, 기인 등)과 그 '책'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독자'들과 그 둘 사이를 이어주는 사서들이 참여하여 진행합니다.



저는 국회도서관장 시절(2010년 2월 3일)에, 국회도서관의 주도로 우리나라 최초로 'Living Library'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다양한 '사람'(살아있는 책)을 도서관이 모셔 올 수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 언론계, 정계를 거치고,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람 못지 않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관악구 도서관으로 모셔 올 수있습니다. 관악구에는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풍부한 경험,지식,지혜를 가진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여 이런 분들도 허락하신다면 관악구 도서관에 '살아있는 책'으로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living BOOK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1-4) 다중 이용시설(대표적으로 지하철역) 한 귀퉁이에 공간을 마련하여 손쉬운 대출,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도서관의 책 배달(퀵)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악구의 크고 작은 도서관을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관악구는 25세~35세의 직장 초년병들이 많이 삽니다. 이들은 대부분은 원거리 출퇴근족이며, 젊은 만큼 학습 욕구가 왕성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도서관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 도서관의 '책단비 서비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단비 서비스'는 은평구 내 지하철역에 무인 도서대출서비스기기를 설치하

여 도서관 자료를 누구나(Anyone), 어디서나(Anywhere), 언제나(Anytime) 이용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2008년 12월 말 현재 월 평균 1,2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책단비 서비스'의 슬로건은 '손에 닿는 도서관'입니다.

- 은평구립도서관 <http://www.eplib.or.kr>

- 책단비서비스 <http://www.eplib.or.kr/ecolas-dl/ewlib>

관악구의 지하철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서울메트로(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116개 역 중 관악구(인구 53만명)에 소재한 역은 4곳(신림, 봉천, 서울대입구, 낙성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09년 3/4분기 일평균 승하차 인원 순위를 보면 신림역은 강남, 잠실에 이어 3위(147,217명), 서울대입구역은 12위(105,684명)로 사용자수가 매우 많습니다. 서울대입구역 1개역의 이용자수는 '책단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은평구의 3개역 녹번(31,847명) 구파발(20,204명), DMC역(32,101명) 승하차 일평균의 합 83,792명보다도 많습니다. 관악구의 낙성대역(60,269명, 36위), 봉천역(46,614명, 53위)의 인원까지 합친다면 359,784명으로 은평구의 4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이 인원의 상당수는 독서에 열심일 수 밖에 없는 젊은 층입니다. 따라서 관악구야 말로 그 어떤 구보다 '책단비 서비스'가 절실한 곳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악구의 크고 작은 도서관은 물론이고 관악구 내의 주민자치센터 문고, 마을문고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자가 소장한 책과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료 공동, 통합 이용 서비스(상호대차 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민간에서는 일상화된 책 배달(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구 재정으로 배달 비용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용자 부담으로 배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책을 배달로서만 받아보는, 책 없는 작은 도서관도 만들겠습니다.

1-5) 크고 작은 공공건물, 특히 구립 청소년독서실(2개), 공부방, 청소년회관, 문화공간 등에 (참)작은 도서관을 넣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면 109개소의 경로당에도 (참)작은도서관 기능을 넣겠습니다. 부족한 책과 자료는 거점 도서관의 배달(퀵) 서비스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경관 좋은 곳에는 지식

특구의 상징으로 이동식 간이(컨테이너) 도서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관악구 주요 기관 및 시설(2010.3.1현재)>

공공기관	행정기관 : 23개소(구청 1, 보건소 1, 동 주민센터 21) 경찰서 : 2개소(파출소 1, 지구대 6, 치안센터 15) 소방서 : 1개소, 119안전센터 4개소 전화국 : 2개소 우체국 : 8개소(우편취급소 10) 등기소 : 1개소
복지시설	경로당 : 109개소(구립47, 사립 62) 복지관 : 5개소 청소년회관 : 1개소 청소년독서실 : 2개소(공부방 1개소) 아동복지원 : 2개소 보육시설 : 283개소(구립34, 법인5, 민간121, 가정109, 직장3, 방과후 11) 여성복지시설 4개소, 여성교실 2개소
기타시설	체육시설 : 475개소 문화재 : 8개소 전통사찰 : 3개소 학교 : 95개소(유치원36, 초등22, 중등16, 고등16, 대학1, 기타4) 영화상영관 : 3개소 의료업소 : 784개소, 약업소 452개소 시장 : 26개소

1-6)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자주 오고 싶어 하는 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대여 기능과 부모들을 위한 편안하고 또 오고 싶은 카페 기능을 도서관에 넣겠습니다.

전체 세계 인구 중 유대인의 비중은 0.19%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2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벨 경제학상은 총수상자의 42%, 의학상은 28%, 물리학상은 26%를 유대인이 수상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지적 성과를 보인 비결로 전문가들은 유대 민족 특유의 뿌리 깊은 가정학습 전통을 꼽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글자를 알게 되면, 꿀 한 숟가락을 아이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아예 책에 꿀을 묻혀 놓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5세부터는 '토라'(구약성서의 첫 다섯 편)를 가르치는데, 잘 배우는 어린이를 위해 특별 파티를 열어준다고 합니다. '배움은 달콤하며 즐겁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책 읽는 것과 도서관 가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사실 이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북카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구의 도서관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관악문화관

내에 있는 카페조차 사진에서 보듯이 전혀 매력적인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국공유 자원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악 문화관 도서관 휴게실 '예그리나' 전경(2009.2)>



1-7) 도서관을 지적 문화 활동의 본산으로 만들어, 수많은 버락오바마와 빌게이츠를 길러내겠습니다.

도서관은 단지 책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번영의 요체가 된 지식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에게 나침반과 무기과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도서관은 활자나 디지털 신호로 된 정보, 지식, 문화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인터넷처럼 세계로 열린 창이자, 수많은 현인들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도서관은 책을 읽을 정도로 눈이 좋은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활자와 친한 사람들, 대학물이나 좀 먹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도서관은 교육(학습)장이며, 직업능력 향상 학교이자, 일자리 알선 센터이자, 벤처창업 요람(빌게이츠 도서관)이자, 수많은 지적 동아리 활동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을 수준 높은 강연, 토론, 공연을 향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 유종필은 도서관에 일자리 알선 기능과 직업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대학 졸업 후 뉴욕공공도서관 미드맨해튼 분관의 직업정보 코너에서 직장을 소개받아 시카고로 갔다고 밝히면서 “미드맨해튼도서관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오바마는 없다”라고 말했다

습니다. 저는 일자리 알선 기능과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된 도서관을 오바마 도서관으로 이름 붙이겠습니다.

사실 오바마 미대통령은 '도서관 마니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 3만여 명이 참석한 미국 도서관대회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어 심금을 울리는 연설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대해 '더 큰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라고 정의하면서 사서는 '진실과 지식의 수호자'라고 하였습니다. 연설 말미에서 현시대를 '지식이 권력이 되고 성공의 관문이 되는 시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잠자리에 들기 전 어린 딸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그들이 스르르 잠이 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천국의 한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이어 발간된 미국도서관협회의 기관지 월간 <아메리칸 라이브러리즈>(American Libraries)가 큼지막한 인물 사진과 함께 이 내용이 커버스토리로 다루어졌습니다. 오바마가 가장 지성적인 미국 대통령 중의 한명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의 도서관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일자리는 단지 일자리 알선 기능으로 찾아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스토리를 포함하여) 창업/취업 관련 강좌와 토론, 벤처창업 동아리 활동, 경영/금융 컨설팅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가운데서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저 유종필은 입기 중에 도서관은 대학입시, 사법고시, 공무원 시험, 대기업 입사 시험 공부하는 청년들이나 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교양서적 읽으러 가는 곳이라는 협소한 인식을 확실히 불식시킬 것입니다. 도서관은 길을 찾는 사람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이모작 삼모작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존과 번영의 양식을 가지러 가는 곳으로 자리 매김하겠습니다. 수많은 오바마와 빌게이츠가 탄생하는 산실로 관악구 도서관을 자리 매김하겠습니다.

1-8) 관악구를 북스타트(start)와 북피니시(finish) 운동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문화운동입니다. 이는 영국의 한 소아과 의사가 처음 주창하고, 영국의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호응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자신의 소아과 병원

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창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생후 8개월경에 영아들이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올 때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앞으로 읽어야 할 도서목록을 주어서 책 읽기는 습관을 들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에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협력하여 순수 민간기구인 '북스타트코리아'를 만들어 여러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북스타트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 여섯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북스타트는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입니다.
2. 북스타트는 아가와 부모의 친교를 돕는 소통수단입니다.
3. 북스타트는 아가들이 책과 친해지게 합니다.
4. 북스타트는 아기 양육의 좋은 방법입니다.
5. 북스타트는 지역사회 문화복지를 키웁니다.
6. 북스타트는 평생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저 유종필은 이 운동에 깊이 공감하고, 관악구 차원에서 적극 받아 안을 것입니다.

가) 저는 1세 아동(약 4,500명) 뿐 아니라, 관악구 아동의 5세(약 4,500명), 10세(약 5,000명), 15세(약 5,400명) 생일에도 구청장 이름으로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나) 저 유종필은 북스타트 운동을 넘어선 북피니시(finish) 운동을 제안합니다. 북피니시 운동은 책으로 인생을 마무리 하자는 운동입니다. 즉 보통 사람들의 책(자서전 등) 저술하기 운동과 공공 도서관에 책 기증하기 운동입니다. 저는 명사는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오신 보통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정리하는 책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 또한 개인들이 소장한 장서를 기증 받아, (공공도서관의) 특정한 방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문고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이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책과 친해지기 운동이라면, 북피니시운동은 어르신들이 책을 쓰고, 책을 남기자는 운동입니다.

라)저 유종필은 관악구는 북피니시 운동의 발상지가 될 수있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도서관 계획 개요

### 2.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도서관

#### 추진목적

지금의 도서관은 단순한 지식습득의 장소가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도서관을 '열린 광장', '만남의 장소'로 조성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유아에서 노년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조성의 중심축으로 활용하고자 함.

####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 수준 높은 지식문화 도시 조성



- 주민이 주인인 도서관
-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 삶을 체험하는 도서관
- 일자리가 있는 도서관
- 만남과 소통이 있는 도서관

- 작은도서관 확충
-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및 기능강화
- 도서관 통합이용 전산시스템 구축
- Living Library 사업 전개
- 북스타트·북 피니시 운동 전개
- Book Festival 개최
- 도서관 내 복합문화 공간 조성
- 새마을문고에 작은도서관 기능 강화

## 도서관 현황

### 구립도서관(5개소)

연번	도서관명	위치	면적(㎡)	열람석	보유도서
1	관악문화관·도서관	대학동 209-1	14,279	532	129,613
2	글빛 정보 도서관	청림동 1717-4	693	139	40,427
3	성현동 작은 도서관	성현동 1703-1	329	91	25,002
4	은천동 작은 도서관	은천동 905-29	457	88	7,974
5	조원동 작은 도서관(건립중)	조원동 568-27	752	-	-

### 공립 작은 도서관 및 북카페(26개소)

연번	도서관명	위치	면적(㎡)	열람석	보유도서
1	은천동자치회관 북카페	은천동 635-6	112	40	4,525
2	성현동자치회관 북카페	성현동 1703-6	86	35	4,525
3	청룡동자치회관 북카페	청룡동 1577-15	36	25	4,590
4	삼성동자치회관 북카페	삼성동 310-8	47	30	4,525
5	관악산 숲속 작은 도서관	관악산공원 내	80	-	2,000
6	새마을문고	21개소	1,298	348	151,955

### 사립 문고(13개소)

연번	도서관명	위치	열람석	보유도서	비고
1	난곡주민도서관외 12개소	신림동 673-23외 12개소	380	49,420	

### 학교 도서관(54개소)

연번	도서관명	학교수	보유도서	비고
1	고등학교	16	170,909	
2	중학교	16	197,933	
3	초등학교	22	307,322	



# 관 약 비 전



### 3.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도서관 실행 계획

## 1 관악구 도서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문화특구」의 조성 및 독서하는 분위기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악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서관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운영

#### □ 추진방향

- 도서관 활성화 시책의 기반이 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구체화 실천계획을 운영하여 사업추진의 내실화 도모

#### □ 사업계획

- 수립기간 : 2010. 9월 ~ 12월
- 시간적 범위 : 2010년 ~ 2014년(5년)
- 공간적 범위 : 관악구 일원
- 계획의 주요내용

- 지식정보 혁명시대 맞춰 미래를 열어가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의 기능 강화 방안

-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 효율적인 도서관 경영기법 개발을 통한 도서관 선진화
- 지역여건에 맞는 중장기 맞춤형 도서관 프로젝트 개발
- 대외 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방안 및 사례
-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마련 방안

- 계획은 도서관 전문업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수립

####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도서관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사항	1				
	소요예산	29				
총사업비	29	29				

## 2 작은도서관 확충

언제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시설을 확충

### □ 추진방향

- 걸어서 10분 거리의 위치에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
- 주변 여건 및 환경에 맞도록 작은도서관의 기능 차별화
- 함께 즐기는 도서관문화공간 조성

### □ 목 표(13개소)

- 어린이전용도서관 : 3개소    ○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내 작은도서관 : 4개소
- 컨테이너도서관 : 3개소    ○ 아파트내 도서관 : 2개소
- 관악산 입구 작은 도서관 : 1개소

### □ 사업계획

#### ○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3개소)

- 조원동복합청사 어린이전용도서관 설치(2007~2010)

- 규 모 : 3~4층, 연면적 752m<sup>2</sup>
- 시설내용 : 영유아실, 열람실, 정보검색실

- 舊 신일경로당 어린이전용도서관 신축(2011~2012)

- 규 모 : 지상2/지하1, 연면적 178m<sup>2</sup>
- 시설내용 : 영유아실, 열람실, 전시실, 문화교실, 정보검색실 등

- 미성동복합청사 어린이전용도서관 설치(2012~2013)

- 규 모 : 400m<sup>2</sup>
- 시설내용 : 영유아·어린이열람실, 영어학습관, 북카페

#### ○ 컨테이너도서관 설치(3개소)

- 형 태 : 컨테이너(공원 1, 물가 1, 길거리 1)
- 규 모 : 6평 내외 주변 환경과 조화된 디자인의 컨테이너
- 내 용 : 북카페 형식의 도서서비스 제공

#### ○ 관악산 작은도서관 설치

- 규 모 : 10평 규모, 도서 2,000권, 간이열람석

- 내 용 : 관악산 매표소를 리모델링 하여 북카페 형식의 도서서비스 제공

○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內 작은도서관 설치(4개소)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내 작은도서관 설치(2010년)

· 면적 27m<sup>2</sup>, 도서 5,000권 규모의 도서서비스 제공

- 관악문화관·도서관 內 북 카페 설치(2011년)

·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책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나 명사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Living Library’ 사업 장소로 이용

- 경로당내 작은도서관 설치(2011년)

· 우림, 인현경로당內 도서 3,500권, 열람석등 설치

○ 아파트내 도서관 설치(운영) 지원(2개소)

- 대 상 : 관악산휴먼시아, 삼성산주공아파트

- 지원내용 : 최초 도서구입비(20백만원), 자료구입비(연 200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사항	1개소		1개소	1개소	
	소요예산	851		417	946	
컨테이너 도서관 설치	추진사항	1개소	1개소	1개소		
	소요예산	52	52	52		
관악산 작은도서관 설치	추진사항	1개소				
	소요예산	93				
체육센터등 공공시설 內작은도서관설치	추진사항	1개소	3개소			
	소요예산	71	170			
아파트내 도서관 설치지원	추진사항		1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소요예산		22	24	4	4
총사업비	2,760	1,067	245	494	950	4

### 3

## 새마을문고 등의 작은도서관 기능 강화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문고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독서공간 제공

#### □ 추진방향

- 새마을문고의 기능을 강화하여 작은도서관화
- 통합동 자치회관에 설치된 도서열람실 기능 강화
- 학교도서관을 일반에 개방하여 인근 주민의 이용 편의 제고

#### □ 사업계획

##### ○ 동 새마을문고의 기능 강화

- 동새마을문고 명칭을 작은도서관으로 통일
- 새마을문고 개방시간 통일 및 공휴일 운영 확대
  - 각 동마다 다른 개방시간을 주중(월~금) 09:00~18:00로 통일
  - 점진적으로 공휴일 및 야간개장 추진
- 도서관통합도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 새마을문고 보유장서 확충 등 이용환경 개선
- 새마을문고 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 자원봉사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통장발급 등 혜택부여 및 자원봉사 실비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문고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새마을문고 방과 후 아동 독서지도교실 확대 운영
  - 10개동(초등학생 20명 내외) → 21개동
  - 초등학생등을 중심으로 올바른 독서지도 및 문화생활 분위기 조성
- 동 자치회관과 연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
- 독서경진대회 개최(연 1회)
- 알뜰도서교환(연 2회)
- 동문고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

##### ○ 동 도서열람실 기능 강화

- 대상 : 은천동, 성현동, 청룡동, 삼성동 도서열람실
- 내용 :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 신간도서 확충, 상호대차서비스

##### ○ 학교도서관의 인근주민 개방

- 대 상 : 난곡·신림초등학교, 봉원·남서울중학교, 당곡고등학교 도서관

- 개방에 따른 지원내용
  - 도서구입비(연 3천만원)
  - 방법용 CCTV 우선 설치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독서경진대회	추진사항	1회	1회	1회	1회	1회
	소요예산	1	2	2	2	2
알뜰도서교환	추진사항	1회	1회	1회	1회	1회
	소요예산	1	2	2	2	2
동문고 운영비지원	추진사항	4회	4회	4회	4회	4회
	소요예산	30	126	126	126	126
동문고 도서구입	추진사항	4회	4회	4회	4회	4회
	소요예산	50	945	945	945	945
동문고 환경개선	추진사항	2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소요예산	9	103	21	21	21
위탁교육	추진사항		6회	6회	6회	6회
	소요예산		9	9	9	9
방과후 아동독서지도	추진사항		21개소	21개소	21개소	21개소
	소요예산		21	21	21	21
열람실 기능강화	추진사항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소요예산		300	300	300	300
학교도서관 개방	추진사항		2개소	3개소		
	소요예산		60	90		
총사업비	6,027	91	1,568	1,516	1,426	1,426

## 4

## 지역도서관 자료의 통합이용 서비스 제공

생활권 내 가까운 도서관(문고)에서 원하는 도서를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의 통합이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 인프라 구축 및 지역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KOLASⅢ 기반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검색 기능강화
- 어디서나 쉽게 도서 대출이 가능한 도서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운영
- 서울대도서관의 일반 개방 추진

□ 사업계획

- 관악문화관·도서관의 도서관리서버 교체(2010년)
- 도서관 통합도서네트워크 구축(총 43개소, 2010~2013년)
  - 대 상 : 구립도서관(4), 도서열람실(4), 도서무인대출기(서울대입구역, 신림역) 어린이도서관(3), 학교도서관(5), 새마을문고(21) 컨테이너도서관(4)
  - 내 용
    - KOLASⅡ→ KOLASⅢ 교체
    - 상호대차 서비스 도입
  - 운영방식
    - 관악문화관·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검색 및 도서 대출 신청
    - 상호대차서비스 업무 전담반 운영(관악문화관·도서관)
- 스마트도서관 도입(2010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
  -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검색, 예약 및 대출 등 각종 서비스 제공
  - 정보화시대에 맞는 모바일 도서서비스 제공으로 신 독서계층 흡수
- 무인 도서대출 서비스 체계 구축
  - 장 소 :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 내 용
    - 관악구에 소재한 지하철역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자동 예약대출·반납기를 설치하여 무인 도서대출 서비스 제공
    - 도서대출 희망자가 인터넷으로 희망도서를 대출 신청하면 도서자동대출기가 설치된 곳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책 배달 서비스 제공
- 서울대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도서정보 공동이용
  - 서울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도서정보 공동이용
  - 서울대도서관의 일반 개방을 위한 협의 시행
  -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DB정보 서비스 제공 (관악문화관·도서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도서관리 서버교체	추진사항	관악문화관 도서관				
	소요예산	87				
통합도서 네트워크	추진사항	4개소	16개소	14개소	9개소	
	소요예산	40	269	119	76	
스마트 도서관 구 축	추진사항	1식				
	소요예산	50				
무인도서대출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사항		2개소			
	소요예산		150			
도서정보 공동이용	추진사항		2개소			
	소요예산					
총사업비	791	177	419	119	76	

## 5 책 읽는 분위기 조성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구민이 참여하는 북앤라이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정보 홍보를 강화하여 자연스러운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정착
- 주민 실생활에 독서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주민의 높아진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문화컨텐츠 개발
-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복지 향상 및 평생교육 실현

□ 사업계획

-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 도서관 운영 및 지속적인 시설 투자
  - 도서관 자료구입 예산 증대



- 도서관 장서개발 및 구축
- 도서관 기타자료(전자책, 점자책, 오디오북 등) 구축

#### ○ 북앤라이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살아있는 책(사람)과의 만남, 「Living Library」 운영
  - 운영횟수 : 분기별 1회
  - 대 상 : 관내 도서관 및 북카페 이용자
  - 주요내용
    - ▶ 주민들이 만나고 싶은 지역인사 및 저자, 분야별 전문가 초청
    - ▶ 도서관 내 북카페 등을 활용하여 초청인사와의 일대일대화 기회 제공
- 「북스타트」 운동 전개(영·유아 대상)
  - 북스타트프로그램(책놀이, 동화구연, 영·유아 발달 특성관련 수업 등)
  - 북스타트데이 지정, 찾아가는 북스타트 청소년 자원봉사자 ‘책 읽어주는 책언니, 책오빠’ 모집 운영
  - 도서관 및 어린이보육시설, 북스타트코리아 등과 연계하여 시민단체의 참여 활성화 추진
-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 대 상 : 자서전이나 회고록 제작을 희망하는 관내 어르신 40명
  - 서울대 국문학과 학생, 지역작가, 문인협회 회원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인생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담은 자서전 편찬작업 지원
  - 어르신의 개인소장 도서 기증 및 공공도서관 내 기증자명의 문고 운영
- 책과 예술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Book Festival」 개최
  - 일 시 : 5월, 10월 (연2회)
  - 장 소 : 구청 앞 광장
  - 주요내용
    - ▶ 사진전시회, 서울대생 그림그리기 및 작품 전시
    - ▶ 구 문화행사(열린 트락음악회등)와 연계한 콘서트 공연 개최
    - ▶ 중고책 시장, 책 기증센터 운영
    - ▶ 책 놀이터, 저자초청 사인회, 시낭송 및 독후감 발표대회 등
- 동 자치회관과 연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동자치회관과 구립작은도서관 연계 동화구연, 독서교실, 책읽어주기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

#### ○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도서관 정보 홍보 강화

- 도서관 종합 안내책자 제작 배포
- 연 1회 10,000부 제작 배포

- 책자내용 : 도서관 현황, 장서수, 프로그램, 도서대출·반납방법 등
- 학교 및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 및 학생에게 배포
- 구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도서관 정보 정리를 통한 홍보 강화
- 우리구 도서관현황, 상호대차서비스,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 중앙·지역일간지 및 관악새소식에 도서관 정보 보도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	4개소	9개소	11개소	12개소	12개소
	소요예산	3,000	4,000	4,500	4,800	5,000
Living Library사업	추진사항		4회	4회	4회	4회
	소요예산		12	12	12	12
북스타트	추진사항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소요예산		45	45	45	45
어르신자서전 제작지원	추진사항		40명	40명	40명	40명
	소요예산		80	80	80	80
Book Festival	추진사항		2회	2회	2회	2회
	소요예산		100	100	100	100
자치회관연계 독서문화 프로그램운영	추진사항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소요예산		40	40	40	40
도서관 종합안내책자 제작배포	추진사항		2회	2회	2회	2회
	소요예산		40	40	40	40
총사업비	22,568	3,000	4,317	4,817	5,117	5,317

## 6 도서관내 복합 문화공간 조성

도서관에서 주민의 문화·복지 생활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 놀이, 학습, 정보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

□ 추진방향

- 편안하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중앙도서관의 역할 다양화
- 다양한 계층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

○ 일자리 알선 센터 설치

- 설치장소 :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먼저 설치한 후 일자리 알선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관으로 확대
- 區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도서관에서 손쉽게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 제공
- 연 2회 창업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특화프로그램운영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

○ 장난감 센터 설치

- 어린이도서관등 유아의 이용도가 높은 도서관에 설치
- 책을 읽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유아 전용 공간 설치
-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중 하나로 놀이지도 등 육아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취업알선센터설치	추진사항		1개소	3,500명	3,500명	3,500명
	소요예산		40	36	36	36
창업전문가 초청 강연	추진사항		2회	2회	2회	2회
	소요예산		2	2	2	2
장난감센터설치	추진사항		1개소	7,000명	8,000명	8,000명
	소요예산		40	5	5	5
총사업비	211		82	43	43	43







## 책 읽는 의정부를 생각한다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한국도서관협회 총괄부장)

2010. 9. 3

### 몇 가지 독서실태

#### ◆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중 ‘독서인구 비율’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독서인구 비율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과 동부(아마도 동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와 읍면부(읍면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로 독서인구비율(%)과 평균 권수(권) 통계를 제공한다. 또한 남녀 별로도 통계가 제공된다. 그 외에 교양서적과 직업관련서적, 잡지, 생활취미정보서적, 기타로 구분해서 2004년과 2007년, 2009년 통계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지역별로 독서인구비율과 평균 권수를 살펴보면, 우선 동 지역이 읍면 지역에 비해 독서율이 크게 높다. 전국 평균 수치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이거나 동 지역, 읍면 지역 모두 2004년 가장 높았고 2007년 전체적으로 독서율이 낮아졌다가 2009년에 들어와서는 다시 높아져 004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권수에 있어서는 모든 지역에서 2004년에 비해 2007년, 2009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독서율은 조금 높지만 평균 권수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2009년 경우에는 학력에 따라 역시 중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의 순으로 독서율과 평균 권수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만 평균 권수에 있어서는 중졸(15.5권)이 고졸(15.2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1년(성인) 또는 1학기(학생) 동안 1권 이상의 책(일반도서)을 읽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독서율은 성인 71.7%('08년 72.2%), 학생 93.7%('08년 89.1%)로 조사되어 성인 10명중 3명 정도는 1년 동안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독서량은 성인 10.9권('08년 11.9권), 학생 16권('08년 14권)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독서량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한 반면, 학생의 독서량은 1994년 조사 이래 가장 많은 독서량을 기록하였다.

▷성인 독서량 변화추이 : 9.5권(94년)→11권(04년)→12.1권(07년)→11.9권(08년)→10.9권(09년)

▷학생 독서량 변화추이 : 14.5권(94년)→11.8권(04년)→13.5권(07년)→14권(08년)→16권(09년)

성인의 독서시간은 평일 28분, 주말 29분(전년대비 1분 감소), 학생은 평일 45분, 주말 50분(전년대비 2~4분 증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의 독서시간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독서시간(초등학생 56분 > 중학생 40분 > 고등학생 38분)이 점차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용시 독서의 비중이 성인의 경우 7순위, 초등학생 4순위, 중학생 6순위, 고등학생 8순위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여가활동에서 독서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교대상 : 책, TV, 인터넷, 신문/잡지, 수면/휴식, 모임, 운동, 영화, 음악, 게임, 휴대폰 등)

우리 국민들의 독서경향은 성인의 경우 문학(41.3%) > 실용/취미(23.2%) > 교양(15.3%) > 만화/무협지(6.4%) 순으로, 중·고생은 문학(43.4%) > 만화/무협지(23.1%), 실용/취미(19%) > 교양(13.5%) 순으로 나타났다.



◆ 교보문고, 직장인 독서경영에 대한 실태조사(20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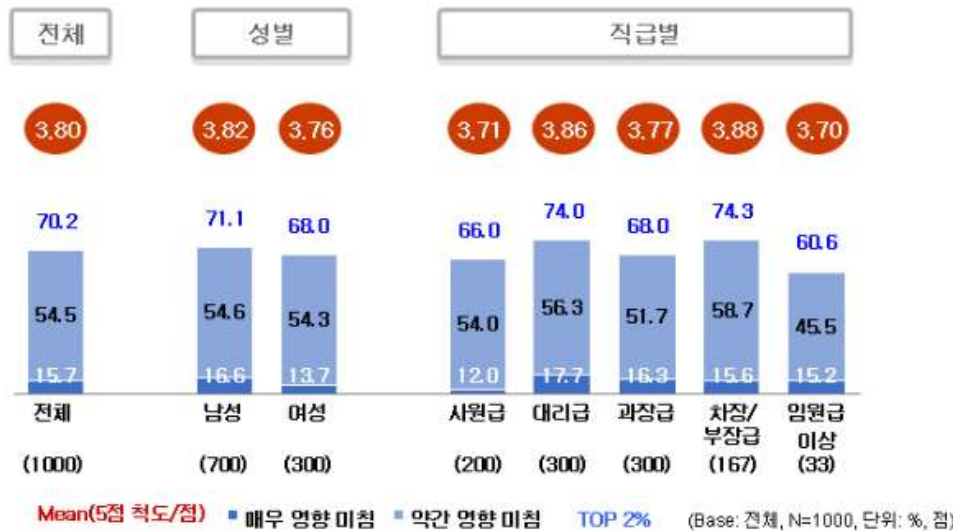
1. 직장인 연간 독서량/성별/연령대/직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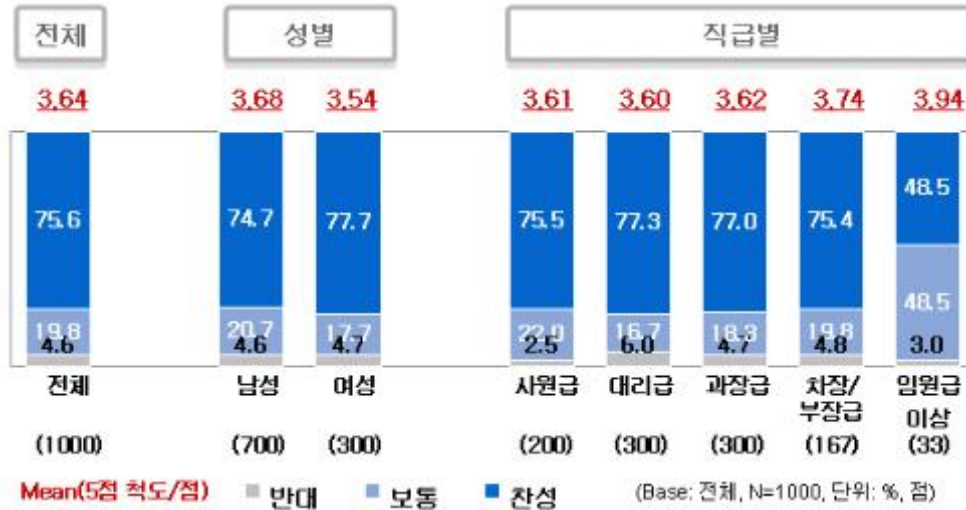
2. 근무 중 독서에 대한 직장의 인식



3. 독서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4. 근무 중 30분 독서에 대한 인식



5. 1권 이상 독서응답자 연간 독서량/성별/연령대/직급/결혼여부/자녀유무/학력/월평균소득



**정부의 독서진흥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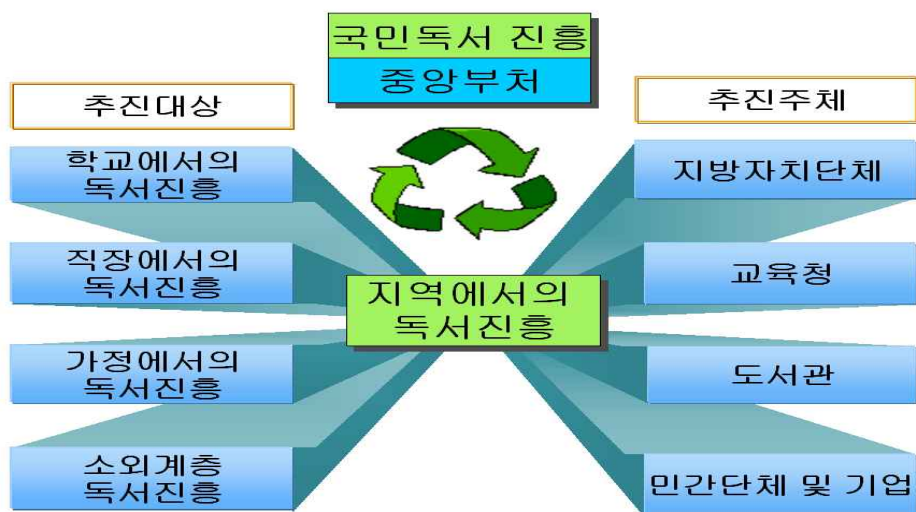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2008.6.10.)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 5년마다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기본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2009년부터 시행되어 201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독서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b>비전</b>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 행복지수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			
<b>목표</b>	국민 독서 활성화			
<b>4대 과제</b>	독서환경 조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	독서운동 전개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b>단위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의 독서환경 조성</li> <li>② 가정의 독서환경 조성</li> <li>③ 어린이집, 유치원 독서환경 조성</li> <li>④ 학교의 독서환경 조성</li> <li>⑤ 직장의 독서환경 조성</li> <li>⑥ 우수도서 출판 및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② 전 국민 대상 무료 독서교육 실시</li> <li>③ 독서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li> <li>④ 독서정보 DB 구축 및 운영</li> <li>⑤ 독서동아리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각종 계기별 독서운동</li> <li>②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운동</li> <li>③ 국내·외 우수사례를 활용한 독서운동</li> <li>④ 소외계층 대상 독서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독서장애인 독서활동 지원</li> <li>② 노인의 독서활동 지원</li> <li>③ 병영에서의 독서활동 지원</li> <li>④ 교도소에서의 독서활동 지원</li> <li>⑤ 복지시설에서의 독서활동 지원</li> <li>⑥ 다문화가정의 독서활동 지원</li> <li>⑦ 독서장애인 관련 제도 정비</li> </ul>

▶ 독서진흥기본계획의 추진전략



## ▶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4대 과제별 추진전략

### ① 독서환경 조성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지역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장서를 확보하며,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집·유치원의 독서환경 조성, 학교(초·중·고)의 독서환경 조성, 직장의 독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생활공간에서 평생동안 독서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또한, 가정의 독서환경 조성, 지역의 독서환경 조성 등 사회의 구성단위별 독서환경 조성을 통해 범사회적으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다양하고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우수도서에 대한 출판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② 국민 독서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다양하고 흥미롭게 독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민들의 연령별 수준에 맞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평생 동안 독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육을 통해 독서의 기능과 효율적인 독서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며,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독서정보 종합 DB를 구축하여 신간도서 정보, 독서교육 자료, 국내·외 독서운동 사례, 독서에 관한 전문지식 등 독서정보·자료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독서운동 전개

독서의 달(9월)에는 ‘독서문화상’ 시상식과 함께 독서캠페인을 전개하고, 세계 책의 날(4월 23일) 책과 장미꽃 나누어 주기 행사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한 독서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북스타트 운동, 1인 1책 쓰기 운동, 아침독서 10분 운동 등 국내·외 우수 독서운동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④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보급, 노인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병영, 교도소 및 각종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점 추진사업<sup>2)</sup>

###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독서교육 실시

2) 이하 구체적 사업 내용은 발표 당시(2008년) 시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일부는 현재 시점에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교사, 학부모, 직장인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07년 서울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한 '독서아카데미'를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지방의 경우 전국 8개 도시(대구, 대전, 충주, 춘천, 순천, 군산, 진해, 제주)에서 찾아가는 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독서 아카데미 시스템을 개발·운영('08.10월 예정)하며, 직장에서의 독서 분위기 조성책 등을 통한 메세나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 특강도 실시한다.

#### △ 정부, 지자체 및 민간단체 공동 독서운동 전개

금년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운동'과 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 독서운동' 등 민·관 협력에 의한 독서운동을 확산시킨다.

#### △ 독서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

'07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독서정보 DB(<http://www.rdceneter.or.kr>)를 중심으로 신간 도서정보, 독후활동, 독서교육, 국내·외 독서운동 사례, 독서에 관한 전문지식 및 정보 등 각종 도서정보를 연계한 독서정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단기적으로는 독서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2012년까지 완공 예정인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내에 '독서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어촌 어린이 등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독서진흥 우수사례<sup>3)</sup>

#### ▶ 영·유아 대상 독서운동(예시)

- 북스타트(Book start/영국), ROR(Reach Out and Read/미국)
  -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운동(예시)
- 읽기와 읽히기 운동(프랑스) : 5~8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원봉사에 의해 추진
- 아침독서 10분 운동(일본) : 매일 아침 학교에서 수업 시작하기 전 10분 동안 모든 학생과 교사가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독서
- 1인 1책 쓰기 운동(대구광역시교육청) : 학생(초중고)들을 대상으로 하며, 1단계는 "삶 쓰기 100자 운동", 2단계는 "1인 1책 쓰기"로 추진

#### ▶ 성인 대상 독서 운동(예시)

- 북크로싱(미국) : 북크로싱은 독서(Read), 기록(Register), 책 해방시키기

3) 이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독서진흥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중 별첨 요약본에서 가져왔다.

(Release) 등 ‘3R’ 을 모토로 하는 ‘책 돌려보기’ 운동

- 한 도시, 한 책 읽기(One City, One Book/미국) : 시민들이 같은 책을 읽고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독서 열기를 높인다는 취지
- 1인 1책 펴내기 운동(청주시) : 청주시는 “1인 1책 펴내기 운동” 을 성공으로 추진, 2007년 제1차 출판기념회 개최

▶ 가정의 독서운동(예시)

- 거실을 서재로 운동(조선일보사) : 거실에 서가를 마련해 독서 중심의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자는 독서운동
- 가정 독서 운동(일본) : 책을 매개로 한 가족문화 조성 운동

▶ 소외계층 대상 독서운동(예시)

- 퍼스트북(First Book/미국) :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책을 지급해 주는 단체이며, 1992년 이후 현재 3,000곳 5천만 권 이상의 책 배포
- 어린이를 위한 책 (Book for Kids/미국) : 9세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문자해독능력 증진과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운동. 교육당국과 Washington Reading Corps(WRC)가 협조로 1990년부터 시작, 대기업이 참여하고 교육부가 재정 지원
- 1인 1책 나누기(문화체육관광부, 수원시, 강남구, 서초구 등) : 소외계층을 위한 책 나누기 운동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한국 독서문화 문제점과 해결방안 <sup>4)</sup>		
분야	문제점	해결방안
독서의식/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독서 인구의 증가</li> <li>- 독서소외 인구의 증가</li> <li>- 독서습관의 부재</li> <li>- 독서 비습관화</li> <li>- 전문 독서교육자 부재</li> <li>- 독서교육 교원연수 부족</li> <li>- 수단으로서의 독서의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독서운동과 독서교육</li> </ul>
도서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인프라 부족</li> <li>- 도서관의 공부방화</li> <li>- 도서관 서비스 미비</li> <li>- 학교도서관 전문사서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 장서 및 시설 확충</li> <li>- 생활 밀착형 도서공간 확대</li> </ul>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08.1. 29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장서의 부족</li> <li>- 대체자료 절대부족</li> <li>- 점자도서관간 네트워킹부재</li> <li>- 장애인 전문사서부족</li> <li>- 공공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 협력부재</li> <li>- 장애인 도서관정책 부재</li> <li>- 직장도서관의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서비스의 다양화</li> <li>-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강화</li> <li>- 사서 확충 및 교육 강화</li> </ul>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출판의 과도한 상업화</li> <li>- 뉴미디어 출판부족</li> <li>- 학습출판물 집중</li> <li>- 독서 자료의 다양성부족</li> <li>- 청소년출판기획부재</li> <li>- 장애인 전용도서 출판부족</li> <li>- 대체자료의 높은 도서가격</li> <li>- 서점의 불균등한 분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판의 공적기능 확대</li> <li>- 우수도서 출판 지원 확대</li> <li>- 대체자료 제작소 설치</li> <li>- 지방 중소서점 지원</li> </ul>
독서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운동의 지속성 부족</li> <li>- 통합적 주체의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문화 진흥 추진체 정립</li> <li>- 미디어와 유명인을 통한 지속적 홍보활동</li> </ul>

### 독서문화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sup>5)</sup>

#### ▶ 경제적 환경의 변화

##### 가.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

- ▣ 문화발전에 대한 요구 증가
- ▣ 국가적 발전의 핵심가치가 경제에서 문화로 변화함

##### 나. 소비패턴의 변화

- ▣ 문화와 감성의 소비
- ▣ 지식기반 콘텐츠 각광

##### 다. 산업구조의 변화

- ▣ 문화산업의 출현
- ▣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08.1. 13-18쪽.

라.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진보

- ▣ 인터넷의 발달
- ▣ 매체 이용의 균형 필요

▶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가. 지식정보·감성중시 사회

- ▣ 지식정보사회와 드림소사이어티
- ▣ 창의성에 대한 요구

나. 문화의 다원화

- ▣ 다문화 사회

다. 여가중심사회의 도래

- ▣ 노동중심에서 여가중심사회로의 전환
- ▣ 여가 양극화
- ▣ 여가소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독서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 정치적 환경의 변화

가. 문화민주주의의 실현

- ▣ 참여정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현된 문화민주주의

나. 지방정부로의 권한이동

- ▣ 중앙집권적 체제의 해체로 정부 규제 완화 및 지방정부 역할 강화

**'2010 책 읽는 의정부'에 대한 6가지 생각거리**

의정부시가 주민밀착형 도서관 조성으로 책의 도시이자 교육공동체로서의 도시공동체를 구현하고자 '2010 책 읽는 의정부'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선도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몇몇 도시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독서 진흥 시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또 종합적인 대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도 여러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의정부시민들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같이 생각하고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점을 6하원칙에 따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핵심과 내용, 절차나 수단 등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왜(why)의 문제다.



이것은 결국 의정부시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왜 책읽기를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가? 책을 읽고 그래서 독서의 일반적 목적(교양을 위해, 연구를 위해, 생활 정보와 수단을 얻기 위하여, 오락을 위해,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 자유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을 위해 각자 한 권의 책을 읽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처음 이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방식의 운동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책읽기가 진행되는 모습, 그리고 도발적 토론을 목표로 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역시 사회적 문제, 즉 예전과 달리 공동체 구성원들간 격리된 삶이 확대되면서 예전과는 다른 사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다시 구성원들 서로간 대화와 소통이 절실했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의정부시민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늘날 책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쉽지 않은 이 같은 독서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정확하고 합의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늘 새로운 문제나 과제, 목표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읽기를 계속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 답변이 필요하다. 왜 책읽기를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토론과 대화, 검증과 결정이 필요하다.

▶ **무엇(what)**의 문제이다.

물론 책 읽는 의정부 사업의 내용은 시민들이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다. 거기에 책을 읽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책을 읽는다는 것도 다양한 단계가 있고, 또 책의 형태도 다양화 하고 있고, 시민들 각자의 책 읽기 방식이나 선호도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 **누가(who)**의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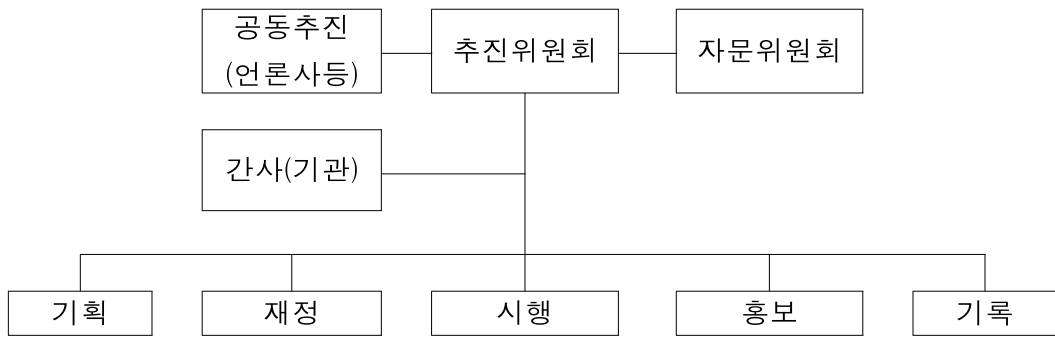
의정부시에서는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되도록 돕고 하는 일을 하는 누구(추진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를 확인하는 것과 실제 책읽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추진주체라고 할 수 있다)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추진조직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곳도 있고, 도서관이 주도하는 경우, 시민단체 주도형이나 민관 합동형 등 다양하다. 그 어떤 형태가 적합한 것인지 판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관심 등등을 고려해서 추진조직의 형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 때에 자칫 의정부시가 앞장서서 독서 캠페인을 주도하는 것은 자칫 관 주도형이라는 부정적 이해와 함께 행정 중심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도 일부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성격의 조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조직에는 당해 지역의 모든 지도급 인사는 물론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

을 갖춘 실무급 인사들이 모두 망라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기관도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공동추진을 하고, 민간기업체나 개인사업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문위원회에는 시청, 시의회, 교육청, 기타 주요 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주요 민간단체의 장도 참여하도록 한다.

추진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당해 지역 공공도서관 또는 별도의 전담 실무조직을 구성해서 사업추진의 중심역할을 맡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실무조직에는 기획, 재정, 홍보, 프로그램 실행, 기록 등 구체적인 역할별로 실제적으로 일을 담당할 사람들로 하부조직을 구성한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관련 단체나 기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차츰 일반시민들이 위원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시민들에게도 위원회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확보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독서진흥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안)>

사업추진주체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렵다. 시민들의 독서 상황이나 욕구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추진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할 때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획, 추진될 수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막연하게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결국 시민의 다양성과 맞닥뜨렸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의 다양성과 독서와 관련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령별로 독서에 대한 인식이나 독서 수행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독서 진흥 운동의 틀을 모든 연령계층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전에 주체에 대한 고민과 정확한 실태조사 등이 꼭 필요하다.

▶ **언제(when)**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물론 당장 시작할 수도 있겠으나, 독서운동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잘 준비해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성과를 얻어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준비시간 그 자체가 이미 독서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일년내내 의정부시는 책을 읽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시작할 경우에는 참여해야 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사전 준비과정에서 사업 추진 과정 내내 최대한 시민들이 사업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설득 과정이 충분히 시행되어야 한다.

▶ 어디서(when) 할 것인가

이건 그래도 간단한 문제이다. 의정부시 전역이 사업 대상지역이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시설이나 공동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단위로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마을단위로도 책임기를 할 수 있을까? 직장은 어떤가? 시청이나 교육청 등 공공기관 단위로도 책임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책임기는 참여공간의 변형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과 조직, 공간에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이같이 한 편으로는 더 작게 세분해 가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의정부시 전체로 묶어 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어떻게(how)의 문제이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책임기를 하고자 한 이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의정부시의 사정(추진주체의 성향이나 분위기, 참여열기, 사업에 따른 재정이나 인력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안들을 선택하거나 새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 소요될 재원의 문제는 미리 짚어볼 수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기본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이나 도서관에서의 예산으로 책정하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관 주도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실제 다양한 시민그룹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민간의 재정적 참여나 후원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서관이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게 되겠지만, 사업이 성숙되어 가면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면에서도 관련 기관간 분담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구조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의 재정 지원 또는 후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체계도 제시되어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각종 홍보물이나 홈페이지 등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광고나 홍보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종 사업 추진 시 홍보물이나 발행물에 후원을 한 민간부문에 대한 쿠폰을 포함시켜 시민들이 그 쿠폰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독서활동이나 토론회 등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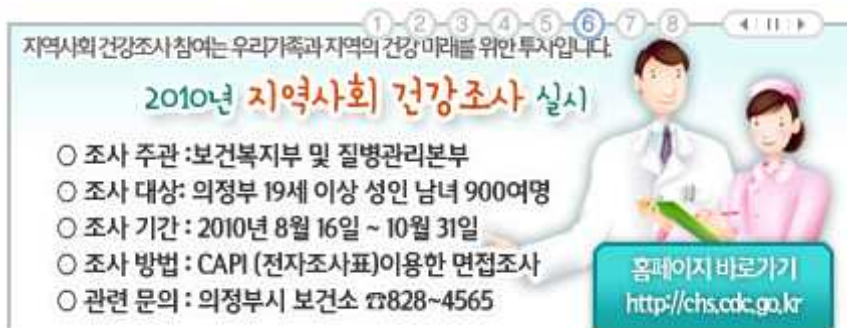
책임기 사업의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

미 여러 지역에서 실행된 여러 프로그램과 지역적인 특성이나 대상도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단계에서 열린 토론을 통해 기획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 '2010 책 읽는 의정부' 추진계획에 대한 몇 가지 의견

### ▶ 장기적 관점 보완이 필요

-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 한 해 사업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중·장기 계획도 필요하다.
- 모든 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현황 파악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 현황 등은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지역단위 독서실태는 체계적으로 조사되거나 분석된 적이 없는 것 같다.
- <참고> 2010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사례



### ▶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

- 계획은 좋은 사업들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다.
- 그러나 그러한 계획들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지점이 무엇인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지도 미리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제시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예: 시민 1인 100권 읽기, 도서관 등록회원 50% 달성 등

### ▶ 제시된 사업간 관계 설정과 통합 노력 필요

- 현재 모두 4가지 영역으로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은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 나아가 각 사업 영역별로 입체적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각 사업간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우선적으로 도서관 확충과 충실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다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시급하기도 하고 영속적이어야 할 일이다. 그런 기반 조성에 맞추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할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계층별로 다양한 참여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사업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으면서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계층별로 별도로 사업이 추진하지 말고 가능한 한 통합하고자 하면 좋을 것이다. 가족 단위 또는 직장 단위 등 일상적으로 가장 친밀한 집단을 사업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몇 가지 제안점

- 절대 성과에 조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독서진흥 사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일희일비한 경향도 없지 않다. 독서진흥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이 책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제대로 몸에 익히려면 수 십 년 세월이 필요하다. 요즘 슬로우 시티라든가 슬로우 푸드 등 ‘천천히’가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시의 책읽기 사업도 목표는 명확하되 절대 조급해 하지 말고 ‘슬로우 리딩’을 지향하면 좋겠다.
- 사업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초기부터 충분한 사업 인력을 투입해야만 사업에 대한 열정과 경험이 소진되지 않는다. 물론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함으로써 인력 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겠으나, 독서진흥 사업에 있어서 시민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향유해야 할 사람들이다. 사업담당자와 자원봉사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충분한 전담 인력(도서관 사업 부문에서는 사서를 포함한 운영인력 등) 확보가 중요하다.
- 사업 추진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 「독서문화진흥법」이 있다. 그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고,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에서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의정부시도 독서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조례 등)을 마련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서관 확충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더 나아가 도서관 사업은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 이후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 특히 동시에 많은 도서관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부분에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건립 이후 운영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확충은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 투자의 핵심은 사람이다.
- 우리 사회가 책을 읽기에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책읽기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시민들이 즐기는 공간과 시간대, 방법을 찾아서 그 안으로 책과 책읽기를 가지고 가야 한다. 오라고 하지 말고 찾아가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점차 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면 그 방식에 먼저 접근해야 한다.
- 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과 관계자 스스로 즐거운 일하기를 바란다. 내가 즐거운 일이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느낌과 방식이 전달될 수 있다. 독서 운동하는 사람이 먼저 책 읽는 것을 즐기고, 때로는 자신의 책 읽기를 위해 사업을 뒤로 미룰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책읽기를 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희생하지 말고 다 함께 천천히 즐기면서 같이 가면 좋겠다. 책을 읽는 목적을 절대 잊지 말기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임을, 그래서 이웃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책 읽는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본 자료는 의정부시의 “책 읽는 정부 추진을 위한 간담회” (2010.9.3.)에서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외부 자료를 이용한 부분 이외의 내용은 온전히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둡니다.**

이용훈 / blackmt@hitel.net / 010-4238-0858

블로그: <http://blog.paran.com/blackmt> / 트위터: @blackmt1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서관의 도시, 책 읽는 도시

##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국회도서관보> 2010년 4월호(통권 369호) 특집 '지방선거와 도서관정책' 원고

### 1.

도서관은 국민의 평등한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이며, 민주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인프라이다. 도서관은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창조력을 함양하게 하고, 사회의 창조적 생산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며 지적 생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기본 시설이다. 도서관의 이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선진 민주사회들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도서관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시민의 여가생활이 늘어나는 데 비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생산적 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정보, 문화, 교육,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도서관 확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반드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직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도서관 자료 확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이라는 도서관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서 구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 공공도서관의 서가에 주민들이 읽을 만한 책도 없이 문화도시를 지향한다고 말하거나 지역문화 발전을 언급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지역 문화를 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서재인 공공도서관의 서가에 읽을 만한 책들을 채워나가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역문화 역량의 강화는 도서관의 서가를 채우는 일부터’ 해야 한다.

책읽기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고는 시민들의 능력이나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독서문화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를 진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독서문화를 진흥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에 책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갖가지 기반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독서생활 공간이다. 영유아들에게 책을 제공해줌으로써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북스타트’는 그 자체로 주요한 독서 생활화의 실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나눔의 실천이기도 하다.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정, 소외지역 가정 등에 읽을 만한 책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책 구입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책 읽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은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갈 자기 실현의 수단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각종 사교육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학교도서관의 인력과 장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학교와 사회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자라나는 세대가 독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서도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서경영’이 새로운 차원의 경영기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책 읽는 경영인, 책 읽는 직원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독서 생활화, 그리고 그러한 독서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과 기반을 만드는 일은 국가적 과제이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우리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지식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가, 주민들이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 교양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없는가, 주민들이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입후보자들에게 반드시 던져져야 할 질문들이다.

이 글의 핵심적인 의제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가능한 한 평등하게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책 읽는 문화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책 읽는 문화공동체 속에서 시민들 각자 자기 삶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도서관의 도시’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고 적극적으로 도서관 정책과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펼치온 순천시와 김해시의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 순천시와 김해시의 사례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 2.

먼저 언급할 도시는 순천시다. 순천시는 1949년 8월 15일에 시로 승격한 뒤 1995년 1월 1일 도농(순천시+승주군) 통합을 이룬 곳으로 면적은 서울의 1.5배에 달하고, 인구는 92,947세대 27만여 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순천시는 '도서관 도시 기반 구축'을 중요한 시정 목표로 설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책을 볼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2003년 기적의도서관 1호관을 유치하고 같은 해 11월 10일 개관을 통해 도서관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을 2007년 1월 9일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서관운영과'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민이 언제든 지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주민의 독서문화를 복돋는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도서관 건립 사업에서는 순천시의 도서관 통합 정책 기능을 감당할 통합도서관 건립(80억원 소요), 조례 호수도서관 건립(소요예산 50억원), 해룡면 농어촌도서관 건립(소요예산 7억원)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을 충실히 확충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들 작은도서관들은 도서관운영과의 행정·재정 지원과 시립도서관의 도서프로그램 지원 및 도서관학교를 통한 시민사서 양성을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서관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새로운 도서관의 모델 도시인 순천시는 '도서관의 도시' 만들기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언급해야 할 도시는 김해시이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지난 10년간 거의 인구가 2배 정도 늘어난 도시다(1996년 286,805명-2006년 453,728명). 이런 인구 증가는 부산권의 공업배후도시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서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김해시로서는 경제 발전을 지속하면서도 문화·교육·복지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단계였다. 김해시는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 공익단체가 지역의 독서문화·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2007년 8월 1일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10가지 시책사업(①'책읽는도시 김해' 종합계획 마련 ②민관 합동의 위원회 구성 ③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④어린이전용 도서관인 '기적의 도

서관' 신축 ⑤학교도서관 지원 ⑥공공도서관 발전 도모 ⑦ 대학도서관 발전 도모 ⑧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인 북스타트 실시 ⑨매년 정기적인 '책도시' 행사 공동개최 ⑩김해시와 책사회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세부적인 로드맵 위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약속이 담겨 있다. 2007년 10월 6일 '책읽는도시 김해'를 선포 하였으며, 2008년 10월 6일 1주년에는 23개의 관종별 도서관들이 상호 협력하기로 하기도 하였다. 김해시의 '책읽는도시' 사업 전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해시 내의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하나로 묶는 통합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공공도서관 29개소(2009년 말 현재, 시립도서관 4개소, 작은도서관 23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다문화도서관 1개소 등)의 책을 통합서버로 묶고, 홈페이지도 통합한 뒤 타관대출반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50만 권의 책이 통합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제대학교를 비롯하여 김해시 내에 있는 4개의 대학 도서관까지 통합하여 총 165만 권의 책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다문화도서관이나 소리도서관(경남점자도서관의 이전)이 개관하였고, 5천여 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비즈니스지원도서관도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김해의 책'을 매년 선정하여 전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청소년, 시민, CEO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갖가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해시는 도서관인프라 구축, 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공공도서관 운영인력의 확충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책의 수도'가 되겠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

김해시의 '책읽는도시 김해' 정책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단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교육지원 정책이자,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이며, 주민의 웰빙을 개발하는 복지정책이며, 국제화 정책이기도 하다. 김해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첫째로 경제도시·복지도시·환경도시·문화예술도시·교육도시의 비전을 '책 읽는 도시'라는 하나의 정책 비전을 통해 구현해나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생활권에 부합하는 도서관의 규모와 역할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서관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권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누리는 생활공간을 말한다. 김해시의 도서관 확충 계획은 소생활권(걸어서 10분 이내, 보행권 내)에는 최소 1개관 이상의 도서관을 확충하고 김해시 전역을 아우르는 대생활권에는 전체 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하나의 도서관이 아니라 하나의 도서관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이러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 정비와 정책부서 보강 작업(도서관정책국의 신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3.

대도시, 중소도시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정도에 등급을 매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물론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것이다.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의 발전이란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행복은 결코 빈곤문제의 해결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물질적 풍요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2007년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UNESCO)는 남미의 가난한 나라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세계 책의 도시(World Book Capital City)'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10여 년 동안 보고타가 책과 독서를 위하여 발전시켜온 지속적이고 집요한 작업" 때문이었다. 2001년부터 보고타에서 펼쳐진 일련의 활동 가운데 가장 유명한 '리브로 알 비엔토(Libro al Viento)--이 말은 '바람 속의 책(Book in the Wind)' 혹은 '바람 속의 자유(Free in the Wind)'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문학을 읽음으로써 좀 더 고귀해지고 행복해지며 지적으로 변화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진적인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과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생태형 도시로 브라질의 꾸리찌바와 네덜란드의 알메르를 탐구한다든가, 문화와 첨단기능 복합도시로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일본의 사이타마 등을 탐구한다든가 하는 일이 그것이다. 그런데 꾸리찌바만 해도 그렇다. 박용남 씨는 <꿈의 도시 꾸리찌바> 한 장의 제목을 '시민을 존경하는 여러 실험'이라고 정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복지와 주택문제, 관광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문화복지, 교육복지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인 '지혜의 등대' 도서관 프로젝트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행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시민을 존경하는 것, 그리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 행정**일지 모른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은 아직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진정으로 시민을 모시는 입장에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기보다는 황금 거위가 될지 미운 오리가 될지도 모른 채 수익률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만 부풀려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책 읽는 도시', '도서관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만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웰빙'을 기약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의 도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순천시와 김해시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개발'과 '건설'이 아니라 **교육-문화-복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떻게 하여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시민들의 책 읽기의 중요성, 그리고 도서관문화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도서관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어렵듯이 시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시민 역량을 키워내는 것도 어렵다. 정보화 시대에 돈이 없어서

책을 읽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된 사회라고 할 수 없으며 복지사회를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첨단산업을 유치하면서 첨단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각종 첨단 정보의 유통에 관심이 없다면 그 첨단산업은 유지되기 어렵다. 시민들의 자기 계발과 평생학습, 여가와 휴식에 필요한 사회문화공간인 도서관을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없이 어떻게 행복도시를 만들 수 있겠는가.

지난 21세기 초엽부터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도서관이 없는 나라를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책이 없는 도서관을 어떻게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민선5기의 지방자치시대, 위의 문제 제기는 “**도서관도 없는 도시가 어떻게 도시냐, 시민들이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행복한 지방자치단체냐**”는 문제 제기로 진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도서관 없는 도시, 책을 읽을 수 없는 독서문화 환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정책은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 민선5기의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문화-복지 정책의 핵심이자, 생활밀착형 공약의 중심이다.(\*).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1-02 조례 제 3299호  
(일부개정) 2009-04-03 조례 제 3395호  
전라북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전라북도의 도서관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09. 4. 3>

제3조(도지사의 의무)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장 대표도서관

제4조(책무) 대표도서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 도서관 시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5조(설치 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대표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운영되지 않는 경우, 「도서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내에서 운영중인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 대표도서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3조와 영 제15조에서 규정한 대표도서관의 업무
2.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4. 그 밖에 전라북도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인력) 대표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운영한다.

제8조(운영규칙) 법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9조(설치)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는 관할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대표도서관장, 전라북도 도서관정책 담당국장, 전라북도 교육청 도서관정책 담당국장 등 4명 이내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1명 이내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전 협의로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라북도 도서관정책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정책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규칙) 법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 보칙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4-24 조례 제 34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와 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

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7. 기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

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전라북도(이하 “전라북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이하 “관련 정책”이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10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③ 시·군에서는 3년마다 작은도서관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④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작은도서관 설립·확대·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마다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년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초·중등교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면 지역은 2명 이상, 동지역은 4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방학기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각 작은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운영자가 없는 시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위원장은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대출)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인이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5장 보 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와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시행)**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독서진흥 행사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에서 독서행사, 강연회,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

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육·출판·도서관·문화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3.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지명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소집하고, 협의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자문하며 이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

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 2010.02.26 조례제10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익산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 문화 진흥 종합계획)**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 까지 연도별 시행 계획 (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진흥)**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독서 문화 복지실현)** 시장은 독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 소외지역

과 계층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 ①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출판·도서관·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3. 익산시의원 1인

4. 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무원과 익산시의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지원

4.“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운동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2.06 조례 제940호
개정 2008.09.12 조례제1005호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0.04.15 조례제10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의 발달과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작은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 등 작은도서관 정책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5.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 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작은도서관 선정 및 설립기준 등) ① 시장이 작은 도서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 지역

2. 문화소외지역(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3.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4. 주민의 독서의지가 강하며 연령별 수혜주민이 많고 독서 열기가 높은 지역

5. 지방자치 운영 기관 중 다중이용 장소 및 특색있는 시설

6. 자체 운영비 및 운영요원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

7. 지속적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 또는 자원봉사회 조직이 가능한 지역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0.04.15>

③ 작은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04.15>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2.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 시장이 설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등) ①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작은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사용목적 및 등록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등록을 받았을 경우
7. 그 밖에 독서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작은도서관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다른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작은도서관 등록 및 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작은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15>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04.15>

③당연직 위원은 시립도서관 소관국장하고 도서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과 관련한 관내 기관장,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정 주요시책에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9.12, 2010.04.15>

1. 도서관 관련 학과 교수
2. 시장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3.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로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서관 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04.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서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0.04.15>

제9조(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새로운 작은도서관 정책을 발굴한다.

⑤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임기 및 위·해촉)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 하는 기간 으로 하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위원이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15>

제15조(지도·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성인·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과 독서진흥
3. 각종 문화시설·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협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0.04.15 조례 제1098호>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